

“교육권 충돌 시대, 기독교학교 공동체적 연대·대응 필요”

사학미션, ACSI 대표단 초청 ‘2026 사학미션 포럼’ 개최
사학 자율성·교육 선택권·기독교 교사 양성 등 해법 모색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사학미션)는 3일 서울 은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청소년센터에서 국제기독교학교연맹(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대표단을 초청, ‘2026 사학미션 포럼’을 열었다.

‘교육권 충돌의 시대, 기독교학교의 공동체적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가의 사립학교 자율성 제한 정책 속에서 한국 기독교학교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재훈 목사는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학교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학자이자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가 설립한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기독교 사학이 참고할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대학 이름에 담긴 ‘자유’가 국가 간섭과 교회 교권에서 독립해 하나님 주권과 성경적 세계관 아래 학문적 자율성을 누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켜낸 점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목사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사학도 국가 재정에 종속돼 건학

이념을 타협해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목사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이유로 학교를 통제하는 현실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 바꾸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재정 지원은 국가 통제의 대가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기조강연자로 나선 래리 테일러 ACSI 대표는 기독교학교가 성경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를 살로 구현할 교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테일러 대표는 “학교 이름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기독교학교가 아니다”라며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립 초기 기독교 신앙과 목회자 양성을 중시했으나 점차 세속화하면서 본연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평가한 프린스턴대학교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학교의 외형적 명칭이나 대학 진학이라는 세속적 성과를 위해 기독교적 핵심 가치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기독교학교의 본질적 사명은 단기



이재훈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적인 학업 성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확고한 교육 철학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테일러 대표는 교사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기독교 교사 없이는 제대로 된 기독교학교도 존재할 수 없다”며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들의 영적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고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준비된 교사를 길러내는 데 교육적 역량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사 양성이 기독교학교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함승수 사학미션 사무총장(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에는 박상진 교수(사학미션 상임이사), 한지민 경신고등학교 교장, 남진석 글로벌선진학교 이사장, 래리 테일러 ACSI 대표, 김요셉 목사(중앙기독교학교 이사장)가 함께 논의를 이어갔다.

박상진 교수는 “국가와 종교교육 통제에 의해 한계적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다



래리 테일러 대표(오른쪽)가 발제하고 있다. 통역은 김요셉 목사(오른쪽) ©노형구 기자

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자율성 침해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폐쇄명령 위기, 기독교대학의 종교지도자 양성 자각 박탈 등 세 가지 전선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 현장 어려움을 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지민 교장은 학급 수 감소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교사들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를 충원하지 못해 가장 젊은 교사가 40세 안팎인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런 여건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교실에서 수업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며 현장 교사들을 향한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남진석 이사장은 대안학교가 겪는 재정 조달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 선택권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교육 바꾸쳐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예리조나주에서 처음 시작된 바꾸쳐 제도는 현재 20개 주로 확대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고 학교 간 긍정적인 경쟁을



(맨 왼쪽부터) 함승수 사무총장(명지대 교수), 한지민 교장(경신학교), 래리테일러 대표(ACSI), 김요셉 목사(중앙기독교학교 이사장), 남진석 이사장(글로벌선진학교), 박상진 교수(한동대) ©노형구 기자



기독교교사들이 기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간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래리 테일러 대표는 미국의 기독교학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관 차원의 연대를 제안했다. 그는 “동성애 관련 문제로 기독교학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ACSI가 소송에 참여해 다른 기

독교학교들이 유사한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학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동체적 연대와 적극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한 기독교학교 교사들과 패널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노형구 기자

조승호 목사, 예상 합동 GMS 신임 이사장 ‘1표 차’로 당선

3일 열린 정기총회 선거서 김성근 목사 제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장봉생 목사) 총회세계선교회(GMS) 신임 이사장으로 조승호 목사의산노회 은샘교회(사진)가 선출됐다.



GMS는 3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선교본부에서 제29회 이사회 정기총회를 갖고, 선거를 통해 조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기호 1번 조 목사는 148표를 얻어 147표를 받은 기호 2번 김성근 목사(소래노회 목동제일교회)를 단

한 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조 목사는 당선 소감에서 “부족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성근 목사님 선거캠프와 협력해 GMS를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에 앞서 조 목사는 정견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선교상황에서 말이 아닌 실행하는 리더십으로 GMS의 새 도약을 이루고 싶다”며 “파송교회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장 체감형 선교동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본부와 선교현장도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선교사 고령화와 은퇴 위기를 다음세대 부흥으로 극복하겠다. 지속 가능한 세대교체 로드맵을 세우겠다. 그리고 법률 및 세무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섬기는 이사장이 되고 싶다. 선교는 말이 아닌 발걸음이다. 위대한 GMS의 유업을 소중히 계승하겠다”고 전했다.

정기총회 전 기자회견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로마서 16: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예상 합동 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GMS는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인”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선교사님이 주 안에서 그 수고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귀한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란다”고 했

다.

직전 이사장 양대식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 2년의 임기를 마감한다. 2년을 지켜보니 GMS는 완벽하진 않지만 잘 조직된 기관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동안 많은 분들과 이 기관을 성실히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GMS 제1대 이사장인 조중기 목사는 축사를 통해 “GMS 모든 임직원분들과 전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다. 더욱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며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출발하는 GMS가 더 크게 발전할 줄 믿는다”고 했다.

예상 합동 부총회장인 정영교 목사는



예상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제29회 이사회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축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 밖에 증경이사장들인 삼재식·김성갑·이춘목·하귀호·김선규·김재호·김찬곤·김정훈·박재신 목사가 참석해

인사했다.

한편, G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설립한 교단 선교기관으로, 세계 약 100개 국에 2,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선교사 파송 기관이다.

김진영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29.9km

영월

70.3km

삼척

예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 정기국회 개원 맞아 함께 예배

국회조찬기도회 9월 정기에배 드려

올해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 가운데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국민의 대화합,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조찬기도회 9월 정기에배'를 드리고 국민의 평안과 국민 통합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연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부

회장)이 대표기도하고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성경을 봉독했다. 겐세마네찬양대(지휘 박상현)의 특송에 이어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베소서 4:3)'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분노와 감정을 잘 조절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 국회의원



국회조찬기도회 9월 정기에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조찬기도회

되기를 바란다"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국회에 살롬의 평안이 가득하고 배려와

상호 존중으로 염려가 기쁨이 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별기도에서는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이 '나라와 국민 화합, 국회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예배는 윤용근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의 헌금기도와 국회기도회성가대(지휘 최수혜)의 찬양에 이어 이영훈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예배 후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장)과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장)은 이영훈 목사에게 제한국회기념패를 전달했다.

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분열과 갈

등, 대립이 심각한 정치환경 속에서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화합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 겸손과 온유, 존중과 배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여야 기독 의원들이 더욱 기도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일 목사(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신생명나무교회)는 "오늘 드린 정기국회 개원예배를 통해 국민을 위한 입법·예산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소망을 전하는 국회가 되도록 기독 국회의원들과 국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영 기자

김삼환 목사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려면 다윗처럼 살아야”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 개막…

“미래 준비하려면 다윗의 영성 배워야”

명성교회가 1일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2026년 9월 특별새벽집회를 시작했다. 주강사로 나선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의 영성과 신앙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새벽집회는 사도행전 13장

21~23절을 중심 본문으로 5일까지 이어진다. 김목사는 첫날 새벽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목사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다"며 "이 모든 것이 주님

의 은혜"라고 말했다.

이어 1980년 9월 시작한 특별새벽집회를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회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회년 새벽기도와 교회 창립 50주년을 함께 감사하는 은총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래 두려워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김목사는 하나님을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영원한 통치자로 설명하며, 인간의 능력과 권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듯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며 "하늘과 땅, 사람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했다.

이어 "오늘날 세상에도 통치자가 많지만 나중에 보면 가족도 통치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조차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다"며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알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목사는 과거 이집트와 그리스, 튀르키예 등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역사 속에서 숭배받던 우상과 권세가 결국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야 그 능력으로 크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과학과 복지의 발전만으로 인간의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다. 앞날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 받아 쓰임받아야”

김목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허무하며 불안하다"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주님의 손이 이렇게 만드셨다"며 "제가 무슨 능력이



명성교회에서 1일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2026년 9월 특별새벽집회가 개최된 가운데 김삼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명성교회

있나. 여러분이 40년 동안 교회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것도 주님 덕분이지 제가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앞날도 은혜와 능력, 축복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다가오는 미래 준비하려면 다윗을 배우라”

김목사는 이날 설교의 핵심 인물로 다윗을 제시했다.

그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가오는 미래와 급변하는 오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뒤 "다윗을 배우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길로 나아가라. 다윗의 영성을 배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마음과 삶, 의지와 지성, 신학과 묵회, 철학에 다윗의 씨를 파종하라"며 자신도 명성교회 개척 전 해방교회에서 10년간 묵회하며 사무엘상·하를 설교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깊이 배웠다고 설명했다.

김목사는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모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내 마음에 합

한 자'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윗을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자 빈 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의 등불이자 왕들의 길을 비추는 인물로 사용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다윗이 전쟁터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시편을 남긴 점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모습을 제시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쓰임받아”

김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믿음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하셨듯 오늘 새벽기도를 드리는 명일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의 부르심과 기쁨부으심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명성교회 특별새벽집회는 매일 오전 5시 40분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8시 30분 3부 등 하루 세 차례 진행되며 C채널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다니엘 최 기자

교회언론회 “용혜인 장관? 차라리 공식으로 두는 게 낫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사진, 이하 언론회)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2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용 의원이 과거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법은 비혼·동성 커플도 부부 가족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성혼을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또 그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이 법은 사상, 종교, 동성애, 교육, 안보, 국방, 기업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했다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용 의원이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법과 낙태를 사실상 완전히 허용하는 법 등에도 참여한 것

을 비판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려면, 그 분야에서 적어도 국가 발전과 사회적 책임과 국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갈 식견과 능력과 경력과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곧 정권의 비극이 시작된다. 장관을 아무나 세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박한수 목사 “용혜인 지명,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국회 앞 낙태 반대 시위서 입장 밝혀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가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목사는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낙태 반대 시위에서 용 의원이 "대표적 악법들을 발의한 사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용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만삭·약물 낙태를 허용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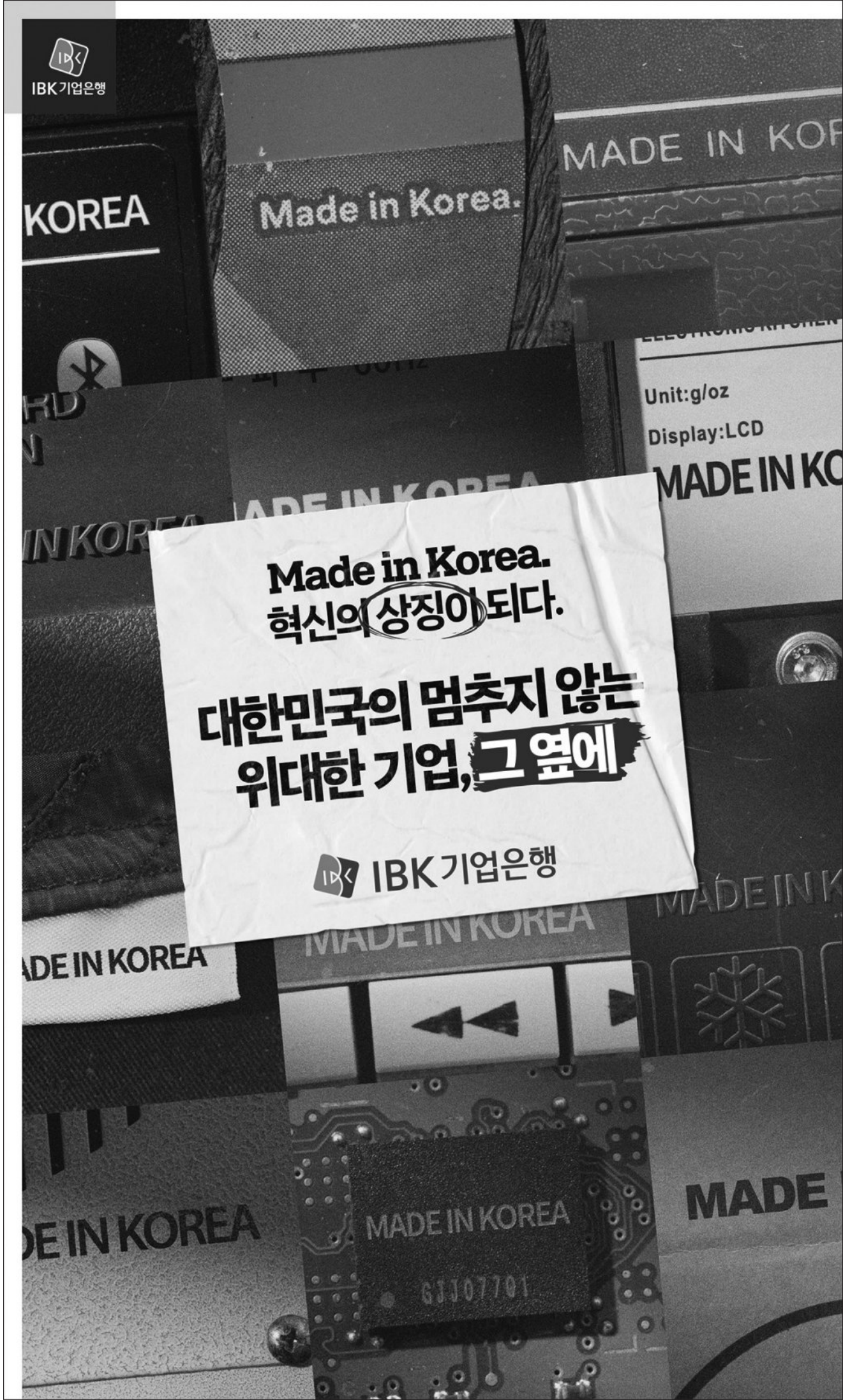
비판을 받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균형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박목사는 "용(의원) 본인의 이러한 과거 행적들이 우려했다"며 "똑똑한 머리와 지식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좋은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로 속히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목사는 용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



국회 앞 낙태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한수 목사 ©김진영 기자

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AI 시대, 시대를 읽고 행할 바를 알라”

제1회 잇사갈 목회자 포럼 열려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KCMUSA, 이사장 민중기 목사)은 27일(목)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박병렬 목사)에서 '제1회 잇사갈 목회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역대상 12장 32절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는 말씀 주제 성구로, 목회자들이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중기 목사는 개회사를 전하며 "목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AI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피세원 목사(더블레싱교회, KCMUSA 이사)가 대표기도를 하고,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주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잇사갈 지파가 시대를 읽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백성을 하나로 이끄는 통솔력을 겸비한 지파였으며, 오늘날 목회자들 역시 이 세 가지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CPU 이세영 교수 - “AI, 성도의 신앙 개인화 가져와 공동체 신앙 약화시킬 수도”
이세영 교수(CPU선교회 교수, AI설교 연구소장)는 '목회 AI 코파일럿 활용'이란 주제로 첫 강의를 이끌었다. 그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보다 AI에게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커지면서 각 개인별 신학이 형성되고, 이것이 공동체적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AI가 제공하는 전지상·속도·예측 가능성이 신적 속성을 대체하게 된다면, 이러한 AI로 인해 발생하게 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말씀 목상을 통한 영적 형성, 안식의 회복, 감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돌봄,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I를 다루기에 앞서 목회자 스스로의 기본기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워드 웡 구글 엔지니어 - AI 기술의 발전 역사 및 위험성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하워드 웡은 '인공지능을 넘어서(Beyond AI)'라는 주제로 AI 발전사와 현재의 트렌드,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들을 제시했다.

그는 1950년대 튜링 테스트부터 2017년 트랜스포머 모델(구글이 자연어처리를 위해 2017년 발표한 모델로 현재 AI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언어모델, ChatGPT 역시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모델이다)의 등장, 2022년 생성형 AI의 대중화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의 발달 단계 및, 최근 통계를 통해 AI 확산 속도를 설명했다.

이어 에이전트형 AI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AI 에이전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사례, 엔트ropic의 AI 모델이 종료를 막기 위해 담당 엔지니어를 협박한 사례, 대만 정부를 겨냥한 AI 활용 해킹 사례 등을 언급하며 에이전트 통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확산이 지역사회, 특히 저소득층 거주지에 초래하는 에너지·수자원 부담 문제와, AI를 로맨틱 파트너로 활용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심화되는 고립과 외로움 문제도 짚었다.

특히 지난 2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오랜 기간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AI 사용이 인



행사를 마친 후 단체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간의 기억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에 대해 언급하며, 분별력 있는 사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박사 - “목회자를 위한 AI 이야기”

데이터 과학자 김사무엘 박사는 '목회자들을 위한 AI 이야기: 이해, 분별, 그리고 가르침'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을 '함수'(f(x))에 비유하며, AI가 그 '역함수'를 학습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함수를 사용하는 데서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 해석했다. 또 2017년 등장한 '단어 벡터화'(word embedding, 컴퓨터가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숫자(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와 '어텐션 메커니즘'(인공신경망이 입력 데이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도록 돕는 IBM의 핵심 머신 러닝 기법)이 AI가 단어 간 의미 관계를 이해하게 된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보다 물질주의(맘몬)가 오늘날

교회와 개인이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AI 시대에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신앙적 대응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옳은 질문을 던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켄 안 선교사 - “AI 활용한 성경연구”

켄 안 선교사는 AI를 활용한 고대 히브리 문자 해독, 아브라함의 여정 지도화, 출애굽 경로 및 여러고성 재현, 예수 탄생 연도 추정 등 성경 고고학·연대기 연구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예수 탄생 연도 추정과 관련해서는 헤롯의 사망 시점, 요세푸스의 기록, 나사(NASA)의 월식 자료, 구레노 총독 시기의 인구 등록 기록, 베들레헴의 밤에 대한 천문학적 해석 등 여러 사료를 단계



이세영 교수(CPU선교회 교수, AI설교 연구소장)가 '목회 AI 코파일럿 활용'이란 주제로 첫 강의를 이끌었다. ©주최 측 제공



AI 연구자인 김사무엘 박사는 '목회자들을 위한 AI 이야기: 이해, 분별, 그리고 가르침'을 주제로 강의했다. ©주최 측 제공

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상세히 시연했다.

그는 여러 AI 모델(ChatGPT, 클로드, 제미니, 그록 등)을 동시에 활용해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AI의 오류(할루시네이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하며, 이 방식이 출애굽 연대, 홍해와 시내산의 위치, 다윗 왕조의 역사성, 예수의 역사성



구글 엔지니어 하워드 웡은 '인공지능을 넘어서(Beyond AI)'라는 주제로 AI 발전사와 현재의 트렌드,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들을 제시했다. ©주최 측 제공



켄 안 선교사는 AI를 활용한 고대 히브리 문자 해독, 아브라함의 여정 지도화, 출애굽 경로 및 여러고성 재현, 예수 탄생 연도 추정 등 성경 고고학·연대기 연구 사례들을 소개했다. ©주최 측 제공

등 성경의 주요 논쟁적 쟁점을 검증하는 데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 강사의 강의에 이어 청중과 강사진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KCMUSA 제공

“주차장 예배에서 새 예배당까지”

아틀란타 늘사랑교회 창립 4주년 감사예배 새 예배처소 이전 감사 말씀찬치에 200여 명 참석
정원호 목사 “디아스포라의 영성 회복해야”
난민교회 개척, 다음세대 교육 등 복음 사역 확장

아틀란타 늘사랑교회(담임 이상헌 목사)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새 예배처소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난 4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늘사랑교회는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지아주 뷰포드에 새롭게 마련한 예배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 및 교회 이전 감사 말씀찬치를 개최했다.

21일과 22일에는 말씀집회가 열렸으며, 23일 주일에는 창립 4주년 감사예배가 12부 통합예배로 드려졌다. 집회에는 약 200명의 성도들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감사예배는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 주차장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늘사랑교회가 창립 4년 만에 새로운 예배처소로 이전한 가운데 드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상헌 목사는 창립 4주년 목회사신을 통해 교회 개척 초기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며 장래의 은혜를 준

비하셨음을 고백하고 지난 4년간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전했다.

◆“출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아스포라”

이번 말씀찬치에는 베트남 하노이 늘사랑교회 정원호 목사가 감사로 초청됐다. 정 목사는 약 7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 교회를 개척해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목회해 온 경험을 나누며 성도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전했다.

집회 주제는 '디아스포라의 영성을 회복하라'였다. 정 목사는 아브라함의 삶을 중심으로 첫날 '디아스포라의 영성을 회복하라'(창 12:1-5), 둘째 날 '괴리감을 극복하고 영성을 회복하라'(창 16:1-3), 마지막 날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창 17:1-27)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번 말씀찬치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 성도들이 단순히 타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디아스포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아틀란타 늘사랑교회 이상헌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예배, 교육, 선교 세 축으로 성장
늘사랑교회는 지난 4년 동안 예배와 교육, 선교를 중요한 목회적 축으로 삼아 사역을 확장해 왔다.

다음세대 사역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힘쓰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독교 대학 설립을 목표로 교육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선교 분야에서도 개척교회답지 않은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회는 조지아주 클락스턴 지역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대상으로 난민교회 한 곳을 개척했으며 현재 두 번째 난민교회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청소년과 장년으로 구성된 선교팀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링컨기념관과 내셔널몰, 조지타운대학교 등에서 거리 및 캠퍼스 전도에 나섰다. 이러한 사역은 미국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됐다.

늘사랑교회는 미국 남침례회(SBC) 국내선교부로부터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는 교회개척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개척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지역교회와 다음세대, 난민과 타문화권을 향한 선교사역을 함께 펼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주차장에서 시작했던 작은 예배 공동체가 4년 만에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가운데, 늘사랑교회는 새 공간을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 전파와 다음세대를 세우고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아틀란타 늘사랑교회 창립 4주년 감사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성도들의 모습. ©교회 측 제공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한현종 목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교회되자”

LA장로교회 창립 4주년, 감사예배와 임직식 개최

LA장로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갖고, 5명의 시무권사가 임직, 2명의 서리집사가 임명됐다.

LA장로교회는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창립 4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드렸다. 이날 예배는 한현종 담임목사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성도들은 지난 4년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예배에서는 역대상 16장 23~24절을 본문으로 한 기원과 찬송, 신앙고백, 찬송, 성경봉독 등이 이어졌으며, 한현종 목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본문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내가’라는 말씀”이라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교회를 세우리’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창립 4주년을 맞아 이 교회가 목사나 장로들, 혹은 몇몇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

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전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했다.

그는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며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며, 교회를 오래 섬긴 성도들이 주인공도 아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LA장로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를 묻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헤드릴 수 있을까를 묻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한 목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사람, 목회자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날 임직한 5명의 시무권사가 인사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20년, 30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곧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세우고, 낙심한 사람과 믿음이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길을 잃은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했다.

이어 “눈물로 들어왔다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교회, 믿

음 없이 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 목사는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다”며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교회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천 년 동안 교회에는 로마



한현종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제국의 박해와 성경을 없애려는 세력,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권력이 있었다”며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살아 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교회가 강해서도, 성도들이 완벽해서도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며 “우리 교회가 무너질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 더 큰 일을 펼치실 것이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

고, 더 많은 가정을 회복시키며, 다음 세대를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 더 많은 이웃들이 행복과 감사함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며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것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고백’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며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LA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했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김정희, 김그레이스, 김성순, 김패티, 안정희 씨가 시무권사로 임직했으며, 김바키, 서인순 씨가 서리집사로 임명됐다.

임직식은 서약과 교우들에게 드리는 권면, 선포, 임직 및 화환 전달, 서리집사 임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지명현 목사(소리엘의 축가, 봉헌찬송, 광고, 찬송, 강준영 목사(전 JAMA 대표)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뉴욕효신장로교회 ‘한여름밤의 꿈’... 온 세대가 함께한 ‘교강스’

‘여름밤, 함께 걷다’ 주제로 영어권 30~40대 새가족들 참여 늘어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김광선 목사)가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 한주간 온 세대가 한 주간 교회에 모여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여름 프로그램 ‘한여름밤의 꿈’을 진행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한여름밤의 꿈’은 분주한 이민생활에 지친 성도들이 여름휴가처럼 교회에서 함께 쉬고 예배하며 교제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교강스’로 자리 잡아 왔다. 올해는 교회 주제인 ‘넥스트 스텝 네스트 처치(Next Step Nest Church)’에 맞춰 ‘여름밤, 함께 걷다’를 주제로 열렸다.

특히 올해는 영어권 성도들과 30~40대 젊은 새가족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교회 측은 지난해부터 처음 교회를 찾는 이들이 꾸준히 늘면서 ‘한여름밤의 꿈’이 기존 성도들의 교제를 넘어 새가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매일 1부 ‘꿈의 예배’와 2부 ‘여름밤의 만찬’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 뒤 교육관 야외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야식을 나누고 포토존과 각종 참여 부스를 이용하며 교제를 이어갔다.

올해 행사장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을 모티브로 한 대형 배너가 설치됐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온 부모부터 지팡이를 짚은 장년 성도, 영어권 성도들까지 세대를 넘어 한자리에 모였다. 찬양이 시작되면 청소년들은 자리에서 뛰며 참여했고, 장년층도 박수로 호응하며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분위기를 만들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인 만큼 설교도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어 통역과 함께 매일 성경 이야기를 상황극으로 재현해 메시지의 이해를 도왔다.

야곱과 천사의 씨름, 블레셋 성문을 메고 헤브론까지 올라간 삼손, 갈릴리 호수위를 걸으신 예수님,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등의 장면이 무대 위에서 재현됐다. 어린이들도 상황극에 집중하며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회는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하되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예배 중에는 세대별 특송도 이어졌다. 테너를 전공한 성가대 지휘자가 이탈리아 가곡을 불러고, 첼리스트 성도의 연주와 영유아부-초등부 어린이들의 울동찬양 등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교역자와 장로들로 구성된 이른바 ‘교장밴드’가 처음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대중가요 ‘여행을 떠나요’를 ‘교강스 떠나요’로 개사해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며 성도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전했다.

예배 후 이어진 야외만찬은 공동체별로 돌아가며 준비했다. 필리치즈 샌드위



뉴욕효신장로교회 ‘2026 한여름밤의 꿈’에서 성도들이 친교를 나누고 있다. ©교회 측 제공

치와 닭강정, 청년 셰프가 개발한 치킨 껌밥을 비롯해 팔방수, 짬뽕수, 떡볶이, 수박, 핫도그, 솜사탕 등 다양한 여름 먹거리가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걷다’라는 주제를 살린 곳즈도 제작됐다. 미니 크로스백과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클릭어 키체인(Clicker keychain)을 선보였으며, 직접 클릭어를 꾸미는 체험 부스에

는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참여가 이어졌다.

뉴욕효신장로교회가 ‘한여름밤의 꿈’을 통해 보여준 특징은 단순히 여름 집회를 여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배와 놀이, 식사와 교제를 한 공간 안에 엮어 세대 간 거리를 좁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어권과 젊은 새가족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이 행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새로



뉴욕효신장로교회 ‘2026 한여름밤의 꿈’에서 어린이들이 울동찬양을 선보이고 있다. ©교회 측 제공

운 이들을 연결하는 접점으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모인 공동체의 에너지를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여름 한철의 행사에 머물지 않고 예배와 교제로 형성된 관계를 신앙 성장과 공동체 정착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대원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중동기독신우회 ‘손양원 선배의 유산’ 출판 “손양원 목사 사랑 알리길”

9월 7일 순복음예수소망교회서 출판기념회

중동 동문 선교사 및 개인 구원 간증 엮어 신앙 유산 계승

예배와 친교 넘어 ‘땅끝선교’에 앞장선 신우회 12년 결실도 소개



중동중·고등학교의 믿음의 동문으로 구성된 기독교신우회가 한국교회사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초월적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을 펴내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로, 교계 안팎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동기독신우회는 오는 9월 7일 저녁 7시 서울 강남 역삼동 순복음예수소망교회 대성전(한솔필리아빌딩 5층)에서 집필진과 신우회원, 동문을 초청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중동기독신우회 18인의 믿음의 유산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강수 회장은 2013년부터 모교인 중동고 총동문회장을 맡던 중, 우연히 손양원 목사가 중동고에서 수학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손양원 목사는 1919년 4월 서울 안국동 중동학교에 진학했으나, 3.1운동 이후 부친 손종일 장로가 고향 경남 함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옥살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20년 4월 학교를 그만두었다.

백 회장은 이를 계기로 2014년 모교에서 열린 중동고 졸업장 수여식에서 95년 만에 손양원 목사에게 명예졸업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기획 및 실행했다. 당시 손양원 목사의 딸인 손동희 권사가 대신 명예졸업장을 받았고, 후에 이 명예졸업장은 손양원 목사가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했던 전남 여수 애양원에서 소장도록 전달됐다.

1906년 설립된 중동고는 1914년 백농



백강수 중동중고 기독교신우회 회장 백강수 장로는 “간증집을 통해 청소년들과 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최규동 선생이 인수하여 지금의 기틀을 세웠으며,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에 앞장선 대표적인 민족사학으로 꼽힌다. 장재계에서 이병철 삼성 초대 회장, 문화계에서 양주동 박사를 비롯해 각계 인물이 이 학교를 거쳐 갔다. 이병철 회장이 중동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1994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견회 회장 재임 당시 삼성이 중동재단을 인수해 운영하기도 했으며, 지금은 명문 자율형사립고로 자리 잡았다.

2014년 손양원 목사의 명예졸업장 행사 이전까지 손 목사는 중동고와 특별한 관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행사를 계기로 손양원 목사가 중동고가 배출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됐고, 2016년 중동고 신우회 창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초대 신우회장을 맡은 백강수 장로는 이후 12년간 신우회를 이끌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중동기독신우회의 탄생과 이후 결실을 이 책의 마지막 18번째

파트 ‘손양원 선배의 선물 중동기독신우회에서 다뤘다.

신우회는 창립 이후 땅끝선교를 목표로 삼아 활동해 왔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사역하는 동문 선교사와 선배들의 이야기를 신앙 간증 형식으로 책에 수록했다. 특히 윤용식 동문이 백강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한 것을 계기로, 2024년부터 약 1년간 윤 동문의 이야기를 필두로 고창 선배들의 릴레이 신앙간증 행사를 순복음예수소망교회에서 진행한 사연, 51회 서정민 동문, 황교장 동문의 영혼구원 스토리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교회개혁교육·제조업·건설 등 은퇴 이후 비즈니스로 아프리카 종합선교의 새 지평을 연 우간다 사현재단을 설립한 이현수 선교사,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명성의과대학과 명성병원 개척 초기부터 함께 해 온 문홍량 장로, 브라질 보수 신학의 뿌리를 지킨 브라질고 이한우 선교사, 몽골 교육 사역 및 몽

골어 저작 활동으로 몽골 초원에 복음의 등불을 밝힌 오형근 선교사, 영적 불모의 땅 일본 동경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사역하는 오필재 선교사, 마안파에서 고아를 보살피며 신학교에서 제자 양성에 힘쓰는 서이석 선교사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중동기독신우회의 땅끝선교 열정

중동기독신우회의 정가예배는 3·6·9·12월 분기별로 한 번씩 드리며, 손양원 목사의 막내딸 손동연 권사 부부가 함께해 피아노와 트럼펫 연주로 섬긴다. 참석 인원은 코로나 이전에 70~100여 명씩 모이던 때보다 다소 줄었으나, 중기모(중동고 기독교 학부모 모임, 기도하는 어머니 모임)와 함께하며 든든한 기도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다.

또한 중동기독신우회는 단순히 예배드리고 친교 하는 모임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먼저 손양원 목사의 후손 중 선교사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왔다. 손양원 목사의 큰딸 손동희 권사의 장남 박유신 목사는 손 목사의 사실상 장손(삼남 손동장의 장남)인 손성열 선교사의 농아 사역을 소개해 주어, 신우회가 사랑을 전했다.

손양원 목사의 양손자인 아프리카 부룬디 안경선 선교사가 한센인 선교를 하러 떠날 때는 후원금을 전달했고, 유나이티드재단과 함께 손양원 70주년 추모음악회 겸 안경선 부룬디 파송음악회를 개최한 이후 한센인 선교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에도 동참하고 있다.

중동기독신우회는 출범 초기부터 땅끝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금으로 동문 출신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중동기독신우회는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에 신우회 장학금을 지원하여 제1기 장학생 에스티파노스를 졸업시키고, 제2기 장학생 한나 자매를 후원하고 있다. 신우회 후원으로 에티오피아 중동부 줄레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

또 식수개발과 위생운동을 진행하는 케냐 팀엔팀을 설립한 동문 이용주 선교사가 건강상 이유로 팀엔팀 사의를 표하면서, 2017년부터는 백강수 장로가 바톤을 넘겨받아 팀엔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성령운동을 일으킨 전 필립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 공격자들로부터 입안에 관통 세례를 받은 센터빌 목사를 한국으로 인도했고, 신우회가 수차례 성형수술 후원 등으로 총상의 흔적을 지운 것도 대표적인 선형 사례이다.

이날 기자 모임에 함께 참석한 중동기독신우회 마영규 수석부회장과 김충렬 회장은 “출판을 준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한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며 “어느 한 분 빠뜨릴 수 없는 귀한 동문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고, 이번에 살리지 못한 분들은 다음 책을 통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강수 회장은 “이 책이 점차 잊히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고, 점차 세속화되어 가는 청소년들과 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오픈도어 칼럼

하나님의 비밀

기독교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시편 27편 1~6절)

평안 중에 어찌면 기독교 퇴보해

박해보다 평안을 더 두려워해야 할지도

16~18세기까지 있었던 프랑스의 개혁교회 성도를 ‘위그노’라고 부른다. 1517년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이 점차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프랑스에도 개혁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펴박과 박해가 구신교 간의 전쟁으로까지 번



최홍규 목사

지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긴 것과 같이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에 개혁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은 1520년 인문주의자들의 교회 갱신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구교의 탄압으로 이어졌다. 1523년 8월 루터주의자 장 발리에르가 허가 없이 철사줄에 묶인 채로 화형당하면 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1533년 11월 존 칼빈은 친구 니콜라 콥의 파리 시장 취임사를 대필해 주었다. 그 내용에 믿음, 은총, 복음 등과 같은 개혁 사상이 담겨 있음을 알아챈 국왕은 이를 신교의 구교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위그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칼빈은 스위스로 망명하였다.

1534년 10월, 파리 시내에 반성경적인 구교의 모순과 교황권을 비난하는 벽보가 나붙자 위그노에 대한 학살이 심해졌다. 1536년 칼빈은 ‘기독교 강요’ 집필 후 국왕에게 헌사하며 위그노에 관대한 정책을 호소했고, 그의 재임 동안 박해가 중지되고 위그노의 수가 증가했다. 그리

하여 1562년에는 프랑스 전역에 위그노 200만 명과 2,000여 교회가 생겨났다.

그러나 1562년 3월 파리 근교 바시의 성벽 헛간에서 위그노 300명이 예배하는 것을 군대가 기습해 60명의 사망자와 100명의 부상자가 나타났다. 일명 바시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1572년 8월에는 앙리 4세의 결혼식을 구실 삼아 축하하러 온 객들을 학살한 성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 그해 파리에서 3,000명, 전국에서 3만여 명의 위그노가 학살되었다.

1589년 앙리 4세가 국왕이 되면서 산·구교 간의 화해를 이뤄내고 남트칙령을 선포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후로 87년간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다시 1685년 루이 14세가 왕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정한 남트칙령을 폐지하고

퐁텐블로 칙령을 내려 그 후로 102년 동안 박해가 다시 진행되었다. 이때 위그노는 산속으로 피하였으나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재산을 잃었고, 100만 명 이상이 프랑스에서 탈출하여 유럽, 미국, 브라질,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흩어졌다. 1787년 루이 16세가 베르사유 칙령을 내리면서 신앙의 자유를 다시 얻게 되었다.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가 종교에 관여하지 않게 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나폴레옹의 등장과 몰락 등 혼란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개혁교회가 탄생하기까지 무수한 희생이 있었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위그노의 새로운 확산이 이루어졌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교회를 이루고 선교 역사를 이룬 것과 같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고

난 중에도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며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의 통일왕국을 이뤄낸 것을 볼 수 있다. 기독교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이다.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평안 중에 살고 있다. 평안 중에만 어찌면 기독교가 퇴보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찌면 박해보다 평안을 더 두려워해야 할지 모른다.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 우리와 저 순교와 박해의 현장에서도 지금 그 비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최홍규 목사(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 가리봉교회 원로목사)

세무를 보는 지혜로운 눈

세무법인 | 헤안慧眼 |

서울대 출신

골치 아픈 세금문제, 세무사가 해결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분 좋은 세무 파트너 송선호 세무사

잠실지점
0554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3길 9, 3층(방이동, 비전빌딩)
M. 010-8566-3244 T. 02-3295-3300 F. 02-3295-3200
E. ctasong@naver.com www.세무법인헤안.com

대표 **송선호** 세무사

- 세무법인 헤안 잠실점 대표
- 충북과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 국세청 영세납세지원단 세무사
- 서울시 마을세무사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 세무 컨설팅 500회 이상

벨라루스, 종교자유 옹호 기독교 활동가 2명 관련 형사 혐의 공개 거부

벨라루스 당국이 러시아로의 범죄인 인도가 추진되고 있는 기독교 종교자유 옹호 활동가 2명에 대한 형사 혐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종교자유 감시단체 포럼18(Forum 18)이 밝혔다.

러시아 독립 언론 소타(Sota)는 이달 초 러시아 연방 수배자 명단 일부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명단에는 개신교 설교자 세르기 멜라네츠와 기독교 인권단체 '크리스천 비전(Christian Vision)' 공동 창립자인 정교회 신학자 나탈리아 바실레비치가 포함됐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벨라루스 당국의 요청으로 러시아 연방 수배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 역시 자신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럼18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수배자 명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벨라루스 당국에 문의했으나, 관계자들은 혐의 내용을 밝히거나 수사기관이 현재 해당 사건을 실제로 수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럼18은 "수사관들은 이들이 어떤 형사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이들이 피의자인지 정식으로 기소된 상태인지에 대한 설명

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종교민족 문제 담당 차관급인 세르게이 게라시메나 역시 포럼18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민스크 출신인 멜라네츠는 2024년 벨라루스를 탈출했다. 그는 같은 해 3월 19일 민스크 사법원에서 기자 이고르 코르네이의 재판을 방청하며 기도

와 지지를 보내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당국은 금지된 벨라루스 언론인협회와 연계됐다는 이유로 코르네이를 형법 361-1조에 따른 '극단주의 조직 가담' 혐의로 기소했다.

멜라네츠는 벨라루스를 탈출한 뒤 인권단체 비아스나(Viasna)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이고르를 지지하고 기도하기 위해 범원에 갔다"며 "그가 혼자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행정구금 13일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추가로 12일간 구금됐다. 석방된 뒤에는 가족과 함께 폴란드로 떠났다.

멜라네츠는 2020년 이후 정부의 탄압을 받은 아권 인사들의 재판에 참석해 이들을 지지하고 기도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크리스천 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감옥에 있

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며 "편지를 쓸 수 있으면 편지를 쓰고, 물품을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했다. 하지만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범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압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멜라네츠는 2021년 2월 당국이 민스크의 뉴라이프 복음교회를 강제 퇴거시킬 당시에도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당시 집행관들은 전동 그라인더로 교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했으며, 약 30명의 집행관과 경찰, 주택관리 당국 관계자들이 퇴거 집행에 참여했다.

멜라네츠는 당시 포럼18에 "공식 문서를 구실로 교회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8월에도 뉴라이프교회 비아체슬라프 곤차렌코 목사와 함께 민스크 지역 경찰 구금 시설 밖에서 기도했다. 당시 곤차렌코 목사는 당국에 의해 구금된 상태였다.

멜라네츠는 경찰이 2024년 1월 자신의 부모를 불러 자신의 행방과 '극단주의 단체'와의 연계 의

혹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질문 대부분은 나와 내가 해온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며 "당국은 가족과 내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는 여전히 기독교적 양심이 이끄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비전의 활동을 조정해 온 바실레비치 역시 벨라루스를 떠난 상태다. 크리스천 비전은 2020년 설립된 단체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벨라루스 국가보안위원회(KGB)는 이후 이 단체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했다.

비테브스크 지역 경찰은 지난 4월 벨라루스에서 형사 사건이 시작된 데 이어 러시아 당국에 바실레비치를 러시아 연방 수배 명단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7일 크리스천 비전 관계자들이 설립한 '전쟁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Christians Against War)' 프로젝트를 '외국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바실레비치는 해당 반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신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의자로 지정됐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포럼18에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원칙적으로 놀랍지 않다"며 "예상했던 일이고, 별다른 감정도 들지 않는다"고 썼다.

벨라루스 내무부는 2025년 4월 8일 크리스천 비전을 공식적으로 '극단주의' 조직 명단에 추가했다. 앞서 같은 달 1일 KGB는 크리스천 비전과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채널 및 바실레비치와 나탈리아 하르코비치, 공동 창립자 드미트리 코르넨코 등을 '극단주의'로 지정했다.

같은 달 오르샤 지역 경찰은 코르넨코의 친척 3명의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색 과정에서 가족 2명의 DNA 샘플을 확보했다. 코르넨코는 2024년 7월 '극단주의 활동 지원' 혐의로 비테브스크 지역 경찰의 수배 명단에 올랐다.

벨라루스 법원들은 2023년과 2024년 비테브스크와 그로드노 지역을 중심으로 크리스천 비전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으며, 단체의 소셜미디어 채널도 '극단주의'로 지정했다.

포럼18은 멜라네츠와 바실레비치가 체포되거나 벨라루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돼 벨라루스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美 교회, 출석자 만족도는 높지만 ‘제자화 격차’ 여전

미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가 발표한 '미국 성경 현황 2026(State of the Bible USA 2026)'에 따르면, 미국 교회의 현실은 낮은 참여율과 높은 교회 만족도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성서공회가 사카고대학 산하 NORC와 공동으로 지난 1월 약 3주간 실시했으며, 성인 2,649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미국인 가운데 매주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25%에 그쳤다. 반면 교회 예배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대면과 온라인을 모두 포함해 37%에 달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는 49%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간헐적이라도 교회에 참석하는 미국인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약 6개월에 한 번' 교회에 참석한다는 응답은 2024년 5%에서 올해 8%로 증가했다. 전혀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9%에서 37%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성서공회는 적

어도 가끔씩 교회에 참석하는 미국인이 약 8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교단별 출석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복음주의 개신교인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했으며, 절반은 연구진이 정의한 '실천적 기독교인(practising Christians)'에 해당했다.

'실천적 기독교인'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참석하면서 신앙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흑인 개신교인 가운데 실천적 기독교인의 비율은 3분의 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주류 개신교인(Mainline Protestant)은 14%에 그쳤다. 주류 개신교인의 65%와 로마 가톨릭 신자의 60%는 기독교 전통에 자신을 포함시키지만 교회 생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명목상 기독교인(nominal Christians)'으로 분류됐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기독교인 여성의 51%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한 반면 남성은 46%였다. 기독교인 남성의 54%는 한 달에 한 번도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10명 중 1명은 교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예배 참여도 여성에게서 더 높았다. 남성 교회 출석자의 약 20%가 전체 예배 참여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30%에 달했다.

세대별로는 X세대의 교회 출석률이 증가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하는 X세대 기독교인은 2024년 49%에서 올해 54%로 늘었다. 반면 젊은 세대의 교회 참여는 여전히 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Z세대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2024년 46%에서 올해 42%로 감소해 전체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출석률이 하락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교회 경험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교회 건강성을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는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지 ▲관계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지 ▲지역사회를 섬기는 문화를 조성하는지 ▲답임목회자가 영적 성장을 본으로 보이는지 등 5개 영역으로 평가했다.

교회 출석자들은 이 5개 항목에서 자신의 교회에 평균 10점 만점에 8점을 부여했다. 가장 많이 선택된 점수 역시 10점이었다.

특히 실천적 기독교인과 교회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성도 사이에는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5개 영역을 종합했을 때 실천적 기독교인의 56%가 교회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간헐적 기독교인은 15%, 명목상 기독교인은 16%에 그쳤다.

성경 이해와 관련한 만족도 격차도 컸다. 실천



©Unsplash/Aaron Owens

적 기독교인의 65%가 교회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다른 두 집단에서는 18%에 그쳤다.

성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경 참여자(Scripture Engaged)'들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이들 가운데 약 74%는 목회자가 영적 성장을 보여주고 이를 돌러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교회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회 출석자의 약 3분의 2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도록 독려하고 성경이 자신의 삶과 관련성을 갖도록 돕고 있다고 답했다. 교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89%가 교회 지도자로부터

성경을 읽고 말씀에 참여하도록 격려받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Z세대 남성은 다른 집단보다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묻는 항목에서 Z세대 여성의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7.9점이었지만 Z세대 남성은 6.9점에 그쳤다.

미국성서공회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교회가 젊은 남성들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성서공회는 "성경 참여는 영적 성장의 가장 효과적인 촉매 가운데 하나"라며 교회와 사역 단체들이 젊은 남성들의 영적 형성에 어떻게 투자하고 이들을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과 실제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지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교회가 상당한 영적 유익과 만족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성서공회는 이를 종합해 "미국에는 거대한 제자화 격차가 존재하지만, 개별 교회들은 예상보다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경 기자



**의 성 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에서 만들어갑니다.

유엔 위원회, “인도 소수 종교 차별 심각”… 인도 정부는 반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인도 정부의 기독교 및 무슬림 등 소수 종교인 차별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9월 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인도가 해당 위원회의 인권 평가를 받은 것은 2007년 이후 19년 만이다.

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투샤르 메타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인도 대표단과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지정 카스트(달리트) 및 지정 부족(아디바시)에 속한 기독교인

교인과 무슬림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기독교 및 무슬림 차별, 강제 개종 캠페인 등 인권 유린 지적

위원회는 우익 자경단 단체들이 주도하는 기독교인 및 무슬림 대상 강제 종교 개종 캠페인과 혐오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주 정부가 제정한 개종 금지법이 기독교 선교 활동을 억압하는 데 불균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소수 종교인들을 지정 카스트 혜택에서 배제하는 1950년 제정 차별적 규정의 철

폐를 촉구하고, 혐오 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인도 정부에 권고했다.

아삼주 등에서 시행 중인 국가시민권등록부(NRC)와 유권자 명부 축소 정책도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거론됐다. 위원회는 벵골어권 무슬림들이 NRC 심사 과정에서 차별을 겪으며 무국적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정비로 전국에서 5200만 명, 웨스트벵갈주에서만 910만 명의 유권자 자격이 박탈됐으며, 이 과정에서 무슬림 유권자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현지 기독교 인권 단체 환영 속 인도 외무부는 정면 반박

로힝야 난민 탄압, 시민사회 단체를 규제하는 외국인 기여 규제법(FCRA) 남용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인도 내 기독교계 및 인권 단체들은 위원회의 이번 보고서 채택을 일제히 환영했다. 인도 복음주의 연맹(EFI)의 비자예시 랄 사무총장은 “작년 한 해에만 기독교인 대상 폭력 및 예배 방해 사건이 747건 기록됐다”며 소수 종교 보호를 호소했다. 전인도 가톨릭 연합 대변인인 존 다얄 박사는 인도 정부의 잇단

인권 침해 부인이 지난 10년간 지속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인도 외무부는 지난 8월 26일 공식 성명을 내고 해당 보고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악의적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도 정부는 제네바 회의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및 소수 종교 탄압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으며, 인종 차별 근절에 대한 국가적 의지는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인도 정부에 소수 민족 권리 보장 및 범 집행 책임 등 주요 권고 사항의 이행 결과를 2년 내로 다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다니엘 최 기자

파키스탄 편자브주 의회 기독교인 청소 노동자 보호 법안 발의

잇따른 유독 가스 사망 사고 계기
무슬림 의원 주도 열악한 노동 환경 및
종교 차별 개선 목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편자브주 의회에서 기독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9월 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파키스탄 사회의 고질적인 악습인 위협의 외주화와 소수 종교를 향한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입법 조치다.

아흐마드 이크발 초드리 파키스탄 편자브주 의회 제3 공공회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청소 노동자들의 존엄성과 안전 사회 보장 및 복지를 주 전역에서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편자브 폐기물 및 청소 노동자 법안'을 제출했다. 무슬림 의원인 초드리 위원장이 주도한 이 법안은 위협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안전 장비 지급과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입법 추진은 올해 사하왈과 파이살라바드 지역에서 파키스탄 기독교인 청소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은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4일 사하왈에서 사킴 마시하와 사마르 마시하가 보호 장비 없이 맨홀을 청소하다 유독 가스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이어 5월 7일 파이살라바드에서도 세 아이의 아버지인 청소 노동자 사비르 마시하가 치명적인 가스에 노출돼 숨을 거뒀다. 함께 작업하던 산왈 마시히 역시 가스 흡입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유독 가스 노출 연쇄 사망 파키스탄 기독교인 청소 노동자 열악한 노동 환경 지적

초드리 의원이 발의한 파키스탄 기독교인 청소 노동자 안전 보장 법안은 작업장 사고 직후 임시 방편으로 대처하던 기존 관행을 탈피해 작업 안전 조치와 보호 장비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사회에서 가장 필수



파키스탄의 위생 청소부의 모습. 이들은 보호 장비 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노동 보호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기독일보 DB

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하수구 등 유해 환경에 투입되는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초드리 의원은 가장 위험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파키스탄 소수 종교인 기독교 공동체 출신이며 이들이 사회 최극빈층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향력 있는 기독교 관중에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됐다면 즉각적인 분노와 책임 규명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소외 계층의 죽음을 방관하는 파키스탄 사회의 불평등한 태도를 꼬집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청소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 환경과 종교 차별 문제는 최근 국제 인권 단체들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되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25년 7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 청소 노동자들이 겪는 카스트 기반의 구조적 종교 차별과 위험한 작업 환경을 고발했다.

◆노골적인 종교 차별 채용 철폐 및 국가인권위 하수구 수작업 전면 금지 촉구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위험한 청소 업무는 역사적으로 하층 카스트로 분류된 비무슬림 소수 종교인에게 불균형적으로 할당되고 있다. 특히 여성 노동자는 성별과 종교에 기반한 추가적인 차별을 겪고 있으며 신성모독 혐의 등 폭력과 낙인에 노출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국제앰네스티가 201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정부 채용 공고 3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공고가 청소 노동자 자격 요건으로 비무슬림 또는 하층 카스트 출신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키스탄 사법부는 이러한 국가 주도의 노골적인 종교 차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25년 12월 정부의 청소 노동자 채용 공고에서 기독교인만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등의 차별적 언어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고 당국에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1988년 이후 유독 가스 노출로 사망한 파키스탄 기독교인 청소 노동자가 70명이 넘는다면 적절한 보호 장비 지급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지시했다.

파키스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독성 가스와 위험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수작업 하수구 청소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연방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 옹호 단체들은 파키스탄 기독교인 청소 노동자 안전 보장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노동 및 작업 안전법의 강력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작업장 안전을 방지해 사망 사고를 야기한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최 기자

카메룬 북부서 기독교인 2명 무장단체에 피랍

보코하람 추정 세력 마을 습격 인근 지역
기독교 공동체 치안 불안 가중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 카메룬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기독교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고 9월 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국경과 인접한 해당 지역 사회의 치안 불안이 가중되면서 현지 기독교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즈 영국 및 아일랜드 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카메룬 북부 마요사바 지역의 마홀라 마을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쳐 기독교인 2명을 납치했다. 피랍된 두 명의 피해자는 각각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현지 성도들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피랍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무장단체의 몸값 요구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픈도어즈 측은 사건이 발생한 마요사바 지역이 보코하람을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지속적인 표적이 되어 온 곳이라고 설명했다. 무장단체들은 마을을 수시로 습격해 납치와 살해 약탈 방화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지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잇따른 무장단체 테러 및 사역자 납치 피해

CDI는 이번 기독교인 납치 사건은 카메룬 북부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수년간 이어진 폭력 사태로 인한 치안 부재와 지역 사회의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근 암치테 지역의 교회 지도자인 바비엔 목사는 현지 기독교인들이 정기적인 납치와 성폭행 예배당 훼손 등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증언했다.

바비엔 목사는 반복되는 폭력 사태로 인해 교인들의 사기와 신앙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의 기도를 요청했다. 북부 지역 기독교인들은 단발성 공격의 위협을 넘어 생계 수단을 잃거나 강제 이주를 당하는 등 일상적인 생존의 위기

에 처해 있다.

사역자를 겨냥한 무장단체의 납치 범죄는 카메룬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카메룬 북서부 지역의 밤부이 푼동 도로에서는 가톨릭 성직자 5명과 민간인 4명이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피랍자 중에는 신부와 수녀 소속 선교사가 포함됐으며 이들 중 일부는 피랍 수일 만에 풀려났다. 이는 카메룬 기독교인들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북부 지역은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의 테러 위협이 거세며 북서부와 남서부 지역은 분리주의 반군 분쟁의 여파가 종교계에 미치고 있다.

◆카메룬 박해 지수 상승… 사태 해결 촉구

오픈도어즈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카메룬은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한 37위를 기록했다. 단체는 카메룬 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폭력을 비롯해 정부의 억압과 조직범죄 부정부패 등 다각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가장 취약한 표적이 되고 있다.

오픈도어즈의 2026년 카메룬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조사 기간 동안 파악된 기독교인 납치 피해자는 최소 100명에 달한다. 또한 100여 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고 약 1만 명의 기독교인이 폭력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 국내 실향민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체는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미신고된 사건이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바비엔 목사는 테러로 가족을 잃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한편 무장단체 대원들의 회심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제 선교 단체들은 마홀라 마을에서 피랍된 기독교인 2명의 무사 귀환을 비롯해 카메룬 내 취약한 종교 공동체의 보호와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국회 세종의사당 2033년 완공 목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이전…공공기관 109개 감축 추진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계획도 올해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할 계획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을 마친 뒤 이전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척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고 밝혔다.

◆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건립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처럼 독립된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일정과 연계해 이전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

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정하고 있다”며 “균형성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정부가 앞서 발표한 메가프로젝트와 ‘5극3축 성장엔진’ 추진 계획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이전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올해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5극3축 성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창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장엔진’과 지역별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지역별 특성과 산업 기반을 반영한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한 총리는 “나눔작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달볼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겠

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일부의 이전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기능개척으로 109개 감축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기능개척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각 부처는 기관별 기능개척 로드맵과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기능개척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소관 정책을 주도하고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행정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개척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이 모두 윈윈이 돼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며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국 기자

김승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수사지휘권 행사 않겠다

“공판검사 권한 존중하고 법과 원칙 따를 것”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도 반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공약적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위법한 청탁이나 특혜 요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 “공소 유지에 관한 공판검사 권한

존중”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에 관한 권한은 공판검사에게 있는 만큼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며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난 1월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현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력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지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특혜 요구 없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간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업체가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청탁 내용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 직원 7명도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 성범죄 사건 수임회계 폐이백 의혹도 해명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수임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것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른 사건은 미성년자가 형들을 따라 범행한 사건이었다며 “다시 기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신념에 따라 변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아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당 회계 폐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고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국가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신속하게 실현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경과 듣고 공식 발표”

부친상 마치고 나흘 만에 출근

후보추천위 재구성·기존 후보 재제청 여부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마치고 나흘 만에 출근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논의를 거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족들이 조출하게 치르려 했는데 갑자기 요란스러워져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인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업무와 관련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며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해 본 뒤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답했다.

공식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관련 보고를 받거나 논의한 바가 없어 경과를 들어본 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 제기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이른바 ‘전전세’ 의혹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뒤 전날까지 휴가를 내고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후속 방안을 검토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이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노태약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 기존에 추천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지가 쟁점이다.

이후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는 조만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용국 기자

WeConnectScience

충전 한번으로 메디슨 갈 수 있어야
과학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

배우지 않아서 몰랐다? 인간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타락한 본성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8월 31일(현지시각)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로빈 슈마허(사진)의 기고글 '우리가 모를 수 없는 것들에 관한 진실(The truth about things we can't not know)'을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의 주요 내용이다.



최근 영국 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존중, 성관계와 동의, 양성평등, 영국의 법과 사회 규범 등을 설명하는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BBC에 따르면 이 자료는 영국의 법과 관습이 일부 입국자의 출신국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 9페이지 분량의 온라인 안내서다.

영국 개혁당의 내부 담당 대변인 지아 유수프는 성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 여성 폭력이 잘못이라는 사실까지 정부가 설명해야 하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치평론가 브랜던 오닐도 이런 기초적인 규범을 별도로 가르쳐야 한다면 이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근본적인 도덕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신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 특정 이민자 집단을 범죄와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인간이 강간과 폭력 같은 행위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 헤이트ن 파네티어는 과거 연인 브라이언 허커슨에게 당한 학대 경험을 공개했다. 허커슨은 자신이 성장하면서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 도덕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인간은 도덕적 진리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몰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울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알

일부는 인간의 본성에 도덕적 진리가 새겨져 있다는 자연법의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존 로크는 인간이 선천적 관념 없이 태어나며 지식은 경험과 환경을 통해 형성된다고 봤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가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학대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폭

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하며, 성경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반복해서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도덕적 지식을 지나는 것과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양심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전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도덕 감각을 어떻게 판단하고 일관되게 적용할지는 배워야 한다. 도덕 교육은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덕성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아이에게 양심이 있어도 그 양심은 훈련해야 한다. 교육은 선과 악에 관한 기본 감각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잘못된 욕망이나 문화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다. 율법과 도덕 교육의 필요성은 인간에게 선천적 도덕 감각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감각이 바르게 형성돼야 한다는 뜻이다.

성경은 사나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었다고

말한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졌다. 바울도 율법 없는 이방인의 양심과 생각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드러낸다고 설명했다(롬 2:14-15).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옳고 그름에 반응하는 양심을 가진 도덕적 존재다.

◆도덕적 지식과 도덕의 근거

기독교 변증가 폴 코판은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아는가라는 인식론의 문제와 그 가치가 무엇에 근거하는지 존재론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된 철학자 J. 버지제프스키가 저서 『우리가 모를 수 없는 것들』에서 펼친 주장과 맞닿아 있다.

버지제프스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만의 도덕적 지식을 부정하거나 억압하고 문화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도덕 원칙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은 공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구를 오감이나 복잡한 추론을 통해 처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그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봤다. 양심은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주어진 도덕적 증언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모든 도덕 문제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타고난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원칙을 알면서도 실

제 상황에 적용할 때 이를 왜곡할 수 있다. 문화와 교육, 욕망과 자기기만도 판단을 흐린다. 무엇이 잘못인지 안다는 사실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인간

버지제프스키는 인간 안에서 두 보편성이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보편적인 도덕적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불완전한 도덕적 요구를 피하려는 욕망이다. 기독교적으로 전자는 하나님의 형상, 후자는 인간의 타락과 연결된다.

악행이 존재한다고 해서 보편적인 도덕 지식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사람은 거짓말과 도둑질, 폭력이 잘못된 일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합리화할 수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도 단순히 “배우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없앨 수 없다. 성장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는 것과 도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일상에서도 사람은 거짓말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몰라서만 거짓말하지 않는다. 잘못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왜곡한다. 폭력과 도둑질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지식의 부재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도덕적 요구를 피하려는 욕망에 있다.

이 원칙은 출신 국가와 문화,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 성폭력은 가해자가 이민자이든 자국민이든 동일하게 잘못이며, 피해자의 존엄과 안

전도 동일하게 보호돼야 한다.

◆양심은 교육되지만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에 올바른 도덕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양심은 훈련될 수 있지만 반복되는 죄와 잘못된 문화로 무뎌지거나 왜곡될 수도 있다.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는 동의와 폭력, 타인의 신체와 존엄, 어린이와 약자를 보호할 책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도덕성을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양심을 깨우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데 있다. 모든 잘못을 무지나 교육 부족으로만 돌리면 인간의 자기기만과 욕망, 책임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단순한 정보 부족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몰라 잘못하기도 하지만, 옳은 것을 알고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기도 한다. 자연법과 양심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을 강간하거나 어린이를 학대해서는 안 되며, 약자를 폭력으로 짓밟거나 타인을 욕망의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이런 진실을 외면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더 깊은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가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외면하고 있는가에 있다. 다니엘 최 기자

초유의 자연재해 앞에서: 애통의 집에서 배우는 섭리와 복음의 긴급성

크리스천포스트(CP)는 9월 2일(현지시각) 워싱턴 스탠드 선임 작가인 조슈아 아놀드(사진)의 기고글 '네팔·중국 홍수로 6,000명 사망·실종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 수요일 네팔과 중국의 외딴 산악 지역에 보기 드문 자연재해가 덮쳤다. 피해 규모도 참담했지만 재해가 발생한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성경은 비극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해 깊은 지혜를 전한다. 전도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아라”(전 7:2)라고 말한다. 이번 비극 앞에서도 잠시 애통의 집에 머물며 무엇을 배워야 할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수요일 현지 시각 오전 8시 37분경 지진 관측 장비는 네팔의 산악 지역에서 규모 4.4의 진동을 감지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곧 지진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얼음과 암석이 빙하에서 떨어져 약 1,200미터 아래 협곡으로 쏟아진 대규모 산사태임을 확인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를 규모 5.2에 해당하는 산사태로 기록했다.

잔해는 계곡을 휩쓸었고 트리슐리강 수위는 30분 만에 약 8미터 상승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약 240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월요일 기준 네팔 당국은 시신 903구를 수습했으나 약 4,25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다. 중국에서도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구조 작업은 계속됐다.

실종자 가운데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당국은 두꺼운 진흙과 잔해에 막힌 산악 터널에 갇힌 수력발전소 노동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피해 지역이 넓고 접근이 어려워 추가 희생자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대규모 인명 피해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함께 애통하는 것이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고 권면했다.

희생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족과 친구, 일상과 꿈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과 실종자의 생사를 기다리는 이들의 슬픔을 함께 품어야 한다.

이번 참사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롬 8:22)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적 믿음은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비극 앞에서 울고 질문하며,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다. 믿음은 질문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답을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그분을 놓지 않는 태도다.

◆자연재해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 욕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욥 38:4)고 물으시며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일깨우셨다.

그렇다고 모든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나 특정한 목적과 곧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재난의 이유를 묻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답을 모두 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 재난을 당했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도 실로암 망대 사고의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무의미한 우연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인간이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모두 파악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고통받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단순화할 위험이 생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선부를 해석보다 겸손을 요구한다.

옳은 거대한 상실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더불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라고 고백했다. 이는 고통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

큰 재난은 삶이 생각보다 연약하며 죽음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 등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이 사실을 말하는 목적은 공포를 조장하는 데 있지 않다. 삶을 당연하게 여기

지 않도록 깨우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며 희생자들을 정죄하는 대신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촉구하셨다(눅 13:5).

예수님의 초점은 다른 사람의 비극을 평가하는 데 있지 않았다. 살아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도록 하는 데 있었다.

◆복음 전도의 긴박함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인간 존재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요한복음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요 3:36)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극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영원한 운명을 함부로 단정하거나 고통받는 이들에게 정죄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각 희생자의 마음과 마지막 순간을 알지 못하며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럼에도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무한정 미룰 수 없다. 사랑하는 이들과 신앙을 진지하게 나누고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을 전하는 일에는 긴박함이 있다. 그 긴박함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

◆애통의 집에서 배우는 지혜

대형 재난은 광범한 일상을 순식간에 멈춰 세운다. 전도서가 말하는 ‘초상집’은 단지 슬픈 장소가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곳이다.

이번 참사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울어야 한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도우며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서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삶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한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소망을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말아야 한다. 애통과 섬김, 복음의 증언은 서로 분리된 일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비극은 모든 답을 주지 않고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 그러나 삶은 짧고 사랑할 시간과 회개할 시간, 복음을 전할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일깨운다. 이것이 산 자가 애통의 집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지혜다. 다니엘 최 기자

대표님!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회사의 성장동력에 날개를 다십시오

성장은 언제나 혁신으로부터, 기업 최적화 생성형 AI가 업무 방식을 혁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 편리한 오피스 기능 | 강력한 검색 기능 | 믿을 수 있는 보안 | 실시간 자막, 회의록 작성 등 편리한 회의 지원 | SEAMLESS하고 쉬운 사용성

SAMSUNG SDS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강태광 목사
월드뷰어 USA 대표

요즘 월요일이 행복하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날이다.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가슴 뛰는 행복이다. 학기를 시작하며 나 자신과 세 가치를 약속했다. 이 세 개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신학교 강의를 위해 출발할 때마다 기도하며 이 세 가치를 언급한다. 그 세 가지 약속은 목사로 살아온 40여 년 세월의 결산이다.

나 자신과 굳게 약속한 세 가지는 단 순하다. 첫째는 성경을 교육하리라! 둘째는 사역 준비를 돕는 강의를 하자, 그리고 셋째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하자라는 결심이었다. 나름대로 비장하게 결심했다. 첫째와 둘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다. 성경의 진리를 나누며, 신학생의 현재와 장래의 사역 돕기를 도모한다. 부족하지만 덕분에 보람찬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셋째 약속은 아직 실천하지 못했다. 아직 어려운 질문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많다. 우선 질문할 틈을 주지 않고 강의를 급하게 진행하기 때문인 듯하다. 나아가 주로 성경을 통해 신학적 논리를 세우고 사역준비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니 질문거리도 없는지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용기가 없어서 질문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르긴 해도 강의실에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곧 받게 될 것이다. 내심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린다. 조금만 미심쩍거나 분명한 대답을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려고 이 대답을 연습하고 있다. 이번 학기 개인 목표는 정말 잘 모르는 사항을 질문받고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목사로 살면서 거의 쉬지 않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 성경 공부 시간이나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도 많이 받았고, 답을 잘 모르는 질문도 있었다. 부끄럽게도 아는 척하기도 했고 알버무리기도 했다. 나아가 목사로 살면서 '아는 척했



던 날도 많고, 주변에 아는 척하는 분들을 보며 실소를 머금었던 때도 적지 않다.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교목실과 종교부를 통해서 학교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가깝게 지내지 않았지만, 멋진 분이던 조병훈 선생님이 조병훈 선생님이다. 조병훈 선생님은 실력이 뛰어나신 국어 선생님이었다. 우리 질문을 명쾌하게 풀어 주셔서 우리가 좋아했다. 그런데 그 조병훈 선생님께서는 우리 질문에 자주 "자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멋졌다. '모르겠다'라는 말이 그렇게 멋진 말인 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목사로 살면서 알팍한 지식을 쌓는 다. 모든 일에 관여하며 모든 일을 아는 척하지만 따지고 보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심지어 전문가가 되어야 할 성경도 잘 모른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성경도 모르면서 사회를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은 제가 잘 못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하려고 한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으로 말씀과 신학을 배우고 말씀으로 장래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후배님(?)들이 '잘 모릅시다'라고 말하는 용기와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맛을 품고 선지 동산을 떠나기를 바란다. 그들은 나처럼 못한 모습으로 일버무리거나 아는 척하지 않고, 당당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지혜로운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아울러 당당히 잘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를 위해 충실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역 후보생이 되기를 기도한다.

마귀의 유혹과 꾀계의 성격(4)



김정부 목사
찬송하는교회 담임
한국교회법학회 이사

C. 성경은 마귀의 속임수가 매우 교묘하고 다양하여 눈치 채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앞서 다룬 영역(물질, 감정, 세상 영광, 두려움-올벌, 영적 교만, 자기 의, 분주함, 죄책감, 비판, 무기력, 회색주의, 이단, 쾌락, 수군거림, 불신앙, 자기 연민, 비교의식, 완악함) 외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치명적인 마귀의 꾀계와 유혹 12가지를 추가로 정리하여 강해합니다.

1. 거룩한 두려움을 마비시키는 '나태와 안일주의'의 프레임

• 성구: "슬픈즉 시온에서 안일한 자여... 너희는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일컬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6:1, 7)

• 강해: 영적 위기의 순간에도 "설마 당장 큰일이야 나겠어?"라며 현재의 평안에 취해 영적 경계 태세를 완전히 내려놓게 만듭니다. 환난과 심판의 경고를 놓치거나 가우로 여깁니다.

2.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는 '피해망상과 원망'의 프레임

• 성구: "장막 안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우리를 아모스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신명기 1:27)

• 강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징계, 혹은 일상의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괴롭히기 위해 이 자리에 두셨다"는 식의 피해 의식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가혹한 독재자

로 오해하게 만드는 꾀계입니다.

3. 영적 가치를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예서와 같은 속물주의'의 프레임

• 성구: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12:16)

• 강해: 눈앞의 하거나 현실적 필요를 핑계 삼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과 영적 특권을 아주 가벼운 대가와 맞바꾸게 만듭니다. 당장의 팔분 한 그릇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보다 더 커 보이게 눈을 가리는 꾀계입니다.

4. 사명을 변질시키는 '아망과 영적 공명심'의 프레임

• 성구: "나는 너를 위하여 큰일을 구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라를 주듯 하리라" (예레미야 45:5)

• 강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라는 명목 아래, 은근히 자기 이름의 높임과 세상적인 성공, 즉 '큰일(대형화, 명예, 업적)'을 좇도록 부추깁니다. 바룩에게 주신 경고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영혼의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5. 참된 연합을 무너뜨리는 '파벌과 분열(당파심)'의 프레임

• 성구: "너희 가운데 투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짜 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어떤 사람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가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고린도전서 3:3-4)

• 강해: 그리스도 안 한 몸 된 교회를 특정 리더, 출신, 취향,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갈라치기 합니다. "우리가 진짜 정통이다, 저쪽은 틀렸다"는 당파심을 심어 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가혹한 독재자

소모시키는 마귀의 고전적 전략입니다.

6. 성실한 삶을 무너뜨리는 '요행과 일확천금'의 프레임

• 성구: "속여서 든 재물은 속히 빠져나 가되 수고하여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언 13:11)

• 강해: 탐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일상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리거나 요행을 바라며 도박과 투기, 혹은 부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도록 유혹합니다. 삶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여 놓는 올무입니다.

7.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지식적 교만과 냉소주의'의 프레임

• 성구: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1)

• 강해: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논쟁에 능숙해질수록, 그 지식이 마음의 겸손과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고 타인을 정죄하거나 교회를 향해 냉소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차가운 머리로 변질되게 만듭니다. 은혜를 이론으로 난도질하는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8. 순종의 타이밍을 빼앗는 '미루기와 지연 작전'의 프레임

• 성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7-8)

• 강해: 성령의 감동과 회개의 촉구가 올 때 "내일부터 잘해야지", "은퇴하고 나서 제대로 헌신해야지"라며 결단을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마귀는 '당장 불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에 하라'고 속삭여 결국 영원한 불순종으로 굳어지게 합니다.

9.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썸부리와 원망'의 프레임

• 성구: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고" (히브리서 12:15)

• 강해: 과거의 상처나 부당한 대우, 삶의 억울함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한 채 묵하듯게 만듭니다. 그 쓴뿌리가 자라나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불신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독을 뿜어내어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10. 진리의 중심을 흐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전도(전통 집착) 프레임

• 성구: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마가복음 7:8, 13)

• 강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 공의, 긍휼 같은 생명의 본질은 놓치게 하고, 인간이 만든 형식, 제도, 교단적 전통, 시대착오적 관습을 절대화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적 프레임입니다.

11. 거룩한 열정을 소멸시키는 '냉정한 무관심과 이기적 영성'의 프레임

• 성구: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12)

• 강해: 세상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 영혼 구원의 영적 부담감에 대해 철저한 눈을 감게 만듭니다. "내 코가 석 자인데 남을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나"라며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 영적 냉각기에 빠지게 합니다.

12. 최종적인 절망과 포기를 심는 '패배주의와 낙심'의 프레임

• 성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 강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썼음에도 눈에 띄는 응답이 없거나 시련이 지속될 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내 인생은 이미 틀렸다"는 깊은 패배주의와 체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표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마귀의 마지막 방책 공작입니다.

〈끝〉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김진홍의 아침묵상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라〉 (잠언 29장 18절)

내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에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논설이 있습니다. 당시에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계에 실렸던 글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구약성경 잠언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르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였습니

다 여기서 묵시란 말이 영어로는 Vision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망할 것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을 하게 된다는 의미의 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비전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일러주는 비전이란 말은 온 백성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 할 미래의 목표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정치가들이 하여야 할 첫 번째의 사명이 국민

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온 국민이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 할 비전을 제시하는 사명이 성직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감당하여야 할 목표의 첫째가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스승들이 가슴에 심어준 그 비전을 성취함에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 비전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갈 때에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번영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 비전이 없는 나라나 기업이나 교회는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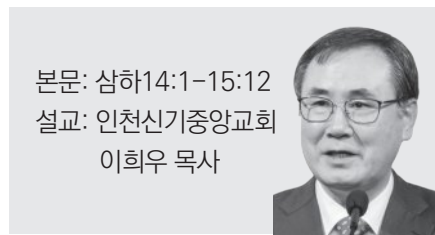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금 해임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일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경표 선택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사무엘서 38. 다윗 가정의 비극(2) 아들 압살롬의 반란



본문: 삼하14:1-15:12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수많은 축복을 경험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멋진 관용구로 노래했던 다윗,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건배했던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취하기 위해 범죄하면서부터 건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11장의 범죄 사건 이후 12장부터의 다윗은 안쓰러울 정도다. 책망과 징계가 매우 가혹하다. 그 추락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절정에 이른다. 가정의 비극이자 나라의 비극, 그런데 이 또한 다윗이 마셔야 할 쓴 잔일 것이다.

◆압살롬을 쫓기는 충신 요압

잘난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 어머니 마야가의 고향 그술로 도망치는 탈주자가 되었다(13:37-39). 다윗은 비록 살인자이기는 해도 장남이나 다를 바 없기에 망명간 아들 압살롬이 그림자(13:30). 이런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린 충신이 요압이다. 요압은 드로아로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와 그 여인이 왕에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압살롬을 쫓긴다.

그 여인은 과부인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이

가 다른 아이를 쳐죽였고, 사람들은 “그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죽인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안개 속에 있던 다윗의 시야를 확 열리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접근이었다. 문제의 본질을 정리하는 명쾌한 제안. 결국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11절)고 한다.

요압이 압살롬 편을 든 것일까? 나중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른 후의 요압의 태도를 보면 그것도 아니다. 압살롬의 강력한 요청이 있기 전까지 다윗과 불편한 것을 알고도 요압은 압살롬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 또 나중에 압살롬을 죽인 것도 요압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이유는 다윗 왕을 위한 충성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왕의 응답함을 시원케 하는, 지혜를 동반한 충성심이 돋보인다(잠25:13 참조).

결국 요압의 지혜로운 처사로 다윗이 압살롬을 캄백시킨다. 그때 요압이 내세웠던 여인의 마지막 충고가 멋지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을 모르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바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14절). 다윗은 압살롬을 더 이상 죽은 자처럼 내버려둘 수 없었다.

◆캄백하는 압살롬

압살롬은 3년 동안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잘난 아들 압살롬. 성경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웠다고 한다(25절). 그런데 이게 문제였을까? 그는 너무 자신감이 넘쳤고, 오만했다. 사람은 약간

부족한 것이 있어야 긴장하고 노력하는데, 압살롬은 너무 잘났던 것이 문제였다. 다윗과 달랐다. 다윗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 막내인데다 몸집도 작고, 여러모로 부족했기에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 그 약점을 보완했다. 그래서 더 강해졌다. 바울도 그랬다. 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12:9)고 하시며, 그 가시를 몸에 남겨두셨다. 그게 바울을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며 사역하게 했을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했을 것이다. 조개 속의 진주도 상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 그대로였다.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었다. 풍성하고 아름다워 연발에 한 번씩 머리털을 자르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 대략 2kg이었다. 긴 머리가 자랑거리. 하지만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도 바로 이 머리털이었다(18:9).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머리털 때문에 나무에 대롱대롱 달린 압살롬을 보고 요압에게 알린다. 그런데 요압은 왜 죽이지 않았으며 만일 죽였으면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줬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은 천 개를 받더라도 왕의 아들을 손댈 수는 없다고 한 반면, 요압은 직접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18:14). 아름다운 머리털이 문제였던 셈이다.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다윗은 압살롬의 예루살렘 거주는 허락하면서도 만나주지는 않았고(24절), 찾

아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팔도 보기 싫었을까? 무려 2년이나 그렇게 지냈다(28절).

다윗은 왜 그토록 압살롬을 모질게 대했을까? 증오심일까? 아마 그건 아닐 것 같다. 다윗은 분명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다(13:39). 그러나 마음이 복잡했던 모양이다. 보고 싶다가도 막상 보면 암울한 생각이 날 것만 같은 복잡한 마음, 이해가 되지 않나?

물론 살인죄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것도 압살롬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 하지만 설명 그럴지라도 그건 자기 합리화 아닐까? 어쩌면 다윗에게 용서를 거절하고 은혜와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독한 마음이 숨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또한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한 그의 죄가 아닐까?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은 “밋세바와의 간음은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 범한 혼외 정사였는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왕으로서 저지른 죄라고 한다면, 압살롬을 거절한 행위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풍성히 받았던 것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지속적으로, 그것도 결연하게 거부한 죄였다”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완고해진, 아예 마음먹고 저지른 다윗의 죄”라고 했다.

맞다. 다윗은 압살롬을 확고하게 용서하지 못했다. 그저 법적 사면 정도랄까? 아버지로서의 통 큰 포용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경험한 것은 아버지의 거절이었다. 무정한 아버지, 아버지로 부터 버림받은 압살롬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였을 뿐,

아마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게 아니었고,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것이다.

무려 2년 동안 변함없이 앉자 압살롬은 요압의 발에 불을 지른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극단적인 액션이었다. 기대대로 요압이 달려왔다. 압살롬은 “차라리 그술에 있게 놔두지 왜 불렀느냐? 죄를 물어 죽이든지, 이게 뭐냐?”며 “왕의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한다. 그만큼 압살롬은 용납받기 원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던 것이다.

결국 요압의 간청으로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를 위한 재회가 이루어진다(33절). 그런데 아들로 인정은 받았지만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이라기보다 왕이 압살롬을 부른 것만 같다. 대화를 보면 ‘아버지’라는 말은 없고, ‘왕’이라는 말만 반복된다. 더 이상 부자관계가 아니라 권력 관계일 뿐이다.

문제는 이때 압살롬이 재회의 기회를 잡고도 판생각을 했다는 거다. 아버지 다윗에 대한 쓴 뿌리가 너무 깊이 박힌 것. 결국 반란을 계획한다. 당한 만큼 갚아 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다. 아버지의 태도를 부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그리고 왕권 찬탈을 위한 과정을 밟기 시작한다.

병력부터 장악했다. 아버지 다윗과 파워 게임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왕이 할 재판을 자신이 대신하면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안아주며 그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다. 4년을 그렇게 한 것.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압살롬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전국을 장악

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 다윗이 왕권을 잡았던 순서를 그대로 밟아간다. 전국 모든 지파에 정탐들을 보내 나팔을 불면 전국적으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압살롬 만세”를 외치게 한다(15:10).

이렇게 압살롬은 사병을 기르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정탐들을 전국에 보내고, 200명의 응원부대와 다윗의 책사마저 끌어들여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 정권 찬탈을 위한 완벽한 계획, 육하는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드디어 다윗의 허약한 정치기반을 파괴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민심도 완전히 돌아섰다. 하지만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압살롬이 평화의 길이 아니라 탐욕의 길로 간 것. 이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물론 “같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12:10-11). 다윗이 우리아에게 행한 잘못에 대한 벌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가족 간의 사랑도 버리고, 나라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간 압살롬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마치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양 전횡까지 일으킨 것을 압살롬의 잘못이자, 그의 책임으로 여기신다.

압살롬이 일으킨 명분 없는 전쟁,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아끼게 하신다. 그리고 내부의 저항 세력을 확인하고 제거하면서 통일국가의 기초를 오히려 더 탄탄하게 하신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박종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명령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사람의 열심과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 하여 가장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건강과 형편, 성공과 결과를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숫자와 건물, 프로그램과 사역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신

뢰하고, 어려움 가운데 서도 기도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세월과 함께 약해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거센 바람을 견디듯, 성도와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

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뿌리내린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품고, 상처 입은 사람을 기다려 주며,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삶에서 나오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격정으로 가득하면 격정이 나오고, 상처

로 가득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면 은혜가 나오고 사랑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우리만 은혜 받고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용서를 흘려 보내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은혜를 쌓아 두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 보내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받은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크기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것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일어 나고 한 영혼을 끝까지 품으며 세상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나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단순히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데 있지 않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더 크게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국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필자는 행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오래동안 조직관리와 리더십을 강의하는 행정학자 목사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심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1. 입법부가 행정부를 지배하려 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나 다수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한다면 입법부 역시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이 법률과 예산을 통해 행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입법권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입법권은 국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중요하다. 그러나 다수결이 곧 정의는 아니다. 소수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고 헌법의 원칙도 지켜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는 다수결과 함께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행정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할 때

반대로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회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더욱 위험하다. 행정부는 국가를 실제로 운영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무제한의 강한 권력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절제된 권력이다. 성경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보다 겸손을 요구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언 16장 18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국민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민주주의의 위기는 시작된다. 권력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기 위해 맡겨진 책임이다.

3.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삼권분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법원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아서도 안 되고 여론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만일 법원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판결한다는 의심을 국민이 갖게 된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사법부가 특정 정치세력의 편에 서는 순간 법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법치주의란 내가 원하는 판결을 받을 때만 법원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판결이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4. 삼권분립의 위기는 곧 국민의 위기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 바로 국민이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처음에는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

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사는 권력의 집중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진 수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처음에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자와 집권세력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성숙은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좋은 지도자도 견제받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사람을 믿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선의를 존중하되 권력은 반드시 견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5.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권력의 한계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인간의 권력은 언제나 제한적이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로마서 13장은 국가의 권세를 존중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권력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권력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정치권력을 우상화해서도 안 되며 특정 정치인을 메시아처럼 추종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도 하나님이 아니며, 국회도 하나님이 아니고, 법원도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섬김의 관점에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마가복음 10장 43절)

정치의 본질 역시 결국 국민을 위한 섬김이어야 한다.

6.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것은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국가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어느 대통령이 재임하든, 어느 정치세력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든 헌법과 삼권분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오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삼권분립을 주장하다가 내 정당이 여당이 되면 삼권분립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라기보다 정권에 대한 이해관계일 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내 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상대방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정치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갈등과 분열은 커진다. 그러나 헌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국민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7. 맺는말 — 권력보다 헌법이 위에 있어야 한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나라는 단순히 정

치체도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곳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는 어느 정당의 편인가?”를 묻기보다 “나는 헌법과 원칙의 편인가?”를 물어야 한다. 어느 정치인을 좋아하느냐보다 그 정치인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민을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정치인은 권력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다. “정의의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장 8절)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헌법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회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법원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법과 정의가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권력자가 국민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삼권분립은 정치인들의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울타리다. 권력은 나누어야 하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하며, 권력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법치주의이며,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밤이 깊어야 별이 보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고뇌 속에서만 인생의 의미가 보이는 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뇌(苦惱)란 무엇입니까? 고뇌(苦惱)란 ‘쓸 고(苦)’와 ‘괴로워할 뇌(惱)’의 합성어입니다. 몸으로 겪는 쓴맛과 마음으로 겪는 괴로움이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고뇌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은 통증 그 자체이지만, 고뇌는 그 통증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과정입니다.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밤, 답이 보이지 않는 질문을 붙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묻는 그 자리가 바로 고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소로는 그 고뇌의 자리에서만 인생의 의미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어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어느 순간 인생의 의미가 문득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소로의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고뇌를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고뇌 없는 삶이 얼마나 얄은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단련 없이 강한 근육을 얻을 수 없습니다. 피땀 어린 연습 없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 없이 노련한 투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깊이도 저항과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밤의 어둠이 짙어질 때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인

니다. 삶의 어둠이 깊을수록 오히려 그 속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과 인생의 의미가 또렷하게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뇌를 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세월을 지난 후에 총리의 자리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창 50:20)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절규한 후에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짓

누르는 압박’을 의미합니다. 삶의 예기치 않은 압박과 고난이 헛된 소망과 이상들을 깨뜨립니다. 인내는 고난 아래 머무는 끈기입니다. 인내란 삶의 무게와 고통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그 아래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연단은 ‘검증을 거쳐 빚어진 인격’입니다. 연단은 금속을 불에 달구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입증할 때 쓰는 제련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검증된 성품(character)’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단을 통과한 사람의 마음에 더욱 깊이 자리 잡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elpis)’입니다. 소망은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소망은 환난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롬 15:13).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소망을 형성(形成)시켜 주십니다. 형성이란 건축하는 것처럼 오랜 수고와 과정을 거쳐 조금씩 모양을 이루고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트 톰슨은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두란노)에서 소망은 형성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 형성 과정을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톰슨은 소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서로 돌볼 때 소망이 깊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역설입니다. 영성가들은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숙한 영성은 한순간에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영적 훈련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런 면에서 소

망도 고난과 고통과 고뇌의 과정을 거쳐 형성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때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대단한 성공이나 업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제게는 소박하지만 쉽지 않은 목표가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뇌까지도 소망을 빛내내는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뇌를 통해 더욱 깊은 소망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대법 “장애인용 자막·화면해설 없는 영화 상영은 차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상대 소송
편의 제공 범위 제한한 항소심 판결 파기환송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 영화 관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편의 제공 대상과 횟수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영관과 전체 상영 횟수의 일부로 제한한 항소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 1부(주심 전대엽 대법관)는 3일 시각 장애인 김모 씨 등 2명과 청각 장애인 오모 씨 등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메가박스 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금지법 제정 소고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화관 측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영화관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하급심 판단은 확정하면서도, 구

체적인 차별 시정 방식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수어 통역 지원하고 첫 ‘이지-리드’ 판결 자료 제공

대법원은 이날 청각 장애인인 오 씨와 함모 씨 등 원고들이 선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지원했다.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 자료도 대법원 최초로 작성해 제공했다. 이 자료는 ‘파기환송’을 “서울고등법원은 잘못 판결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김 씨 등 장애인 4명은 2016년 2월 영화관 3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각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따른 영화 ‘도가니’가 2011년 개봉했지만 정작 청각 장애인들은 제대로 관람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각 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청각 장애인에게는 한글



©뉴스시

자막과 FM 시스템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 항소심, 300석 넘는 복합상영관에 제한적 의무 부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문화·예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등은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영화관 측에 화면해설과 자막, 관련 수신기기와 서버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도 영화관들이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점

은 인정했다. 다만 영화관 측이 주장한 재정적 부담을 일부 받아들여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상영관과 상영 횟수를 제한했다.

항소심은 복합상영관 전체 좌석이 300석을 넘는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만큼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모든 관객이 화면해설 등을 함께 접하는 ‘개방형’ 방식과 이어폰 등을 통해 장애인 관객만 이용하는 ‘폐쇄형’ 방식 가운데 하나를 영화관이 선택하도록 했다. 장애인 원고들과 영화관 측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 대법 “영화관 재정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

대법원은 영화관이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본 1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영화관 측의 패소 부분은 확정됐다.

그러나 항소심이 정한 편의 제공 범위와 횟수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개방형 상영방식과 폐쇄형 상영방식 각각에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에 해당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더 나아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화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하고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과 사회통합 의미 제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이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대법원은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장애인 개인의 자아 발전과 사회참여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사회통합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차별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정할 때 적용할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장애인 보호의 이념과 영화상영업자의 재산권 및 경제적 자유가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래 기자

각당복지재단·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웰다잉 심포지엄’ 개최



각당복지재단이 서울신학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신학대학교 존도

마스홀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 삶을 완성하는 복음’을 주제로 ‘기독교 웰다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웰다잉과 장례문화

를 조명하고, 죽음 앞에서의 묵화적 돌봄과 영적 케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를 통해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오후 순서에는 각당복지재단이 최근 발간한 ‘천국소망노트’와 ‘천국소망교육 교재’가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오후엔 회장이 직접 나서 교재의 기획 취지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안내하며, 교회와 사니어 사역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적용 사례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온라인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nrA7cUD0a60HT-0jSaXXYkKTUN4L20wzQa-bnhBRMHlnSzQ/viewfor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이며, 참가자들에게는 점심 식사와 함께 기독교 웰다잉 및 사니어 교재 3권이 혜택으로 제공된다.

심포지엄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신학대학교 연락처(032-340-9265)로 하면 된다.

노형구 기자

복지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만나 현장 개선책 청취

경찰과 정보공유·실무자 보호·처우개선 등 논의
아동학대 신고 2회 이상이면 즉각 분리 우선 고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들을 만나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 시타워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대응하는 전담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사 대상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의 대응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실무자를 보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도 논의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할을 강화하

고 위기가동을 조기에 발건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도 발표했다. 대책에는 1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즉각 분리를 우선 고려하고,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정부 공무원과 경찰이 대상 가정을 함께 방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나래 기자

직장인 국민연금 기금 62% ‘부정적’... 분노 가장 많아

블라인드 노후 기금 3만5211건 분석
최대 관심사는 기금 고갈...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

직장인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온라인에 올린 글 가운데 60% 이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감정 가운데서는 분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구 전문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연구원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노후 관련 글 3만 5211건을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 관련 게시물에서 나타난 부정적 감정은 62%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분노가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 국민연금 최대 관심사는 ‘기금 고갈’

연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전체의 19.9%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통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조정했다.

상반기 국내 증시 호조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상승했지만 장기적인 기금 소진 우려는 계속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연금 급여를 충당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연구자별 추정에 차이가 있지만 소득의 20~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 정년 연장 논의에는 ‘세대 갈등’ 부각

정년 연장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는 세대 갈등으로, 62.1%를 차지했다. 관련 감정 가운데서는 분노가 30.7%로 가장 높았다.

노후 관련 전체 게시물에서는 경제적 준비에 관한 내용이 40%로 가장 많았다. 결혼·이성관계에 관한 내용도 39%를 기록해 경제적 준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제적 준비에 관한 게시물 비율은 2018년 44%에서 2025년 40%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결혼·이성관계에 관한 게시물 비율은 36%에서 39%로 늘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연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노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결혼과 일자리 등을 통해 이미 청년 세대의 현재 문제로 다가와 있다”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사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목회상담치유

왜 그런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의 적응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지를 자주 이동 하는가?
나는 목회를 실패한 것일 가?

◆ 답답하고 허전하고
심란할 때 상담해주세요!

이 종 운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6길 4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대지: 76평 -매매가: 1억 5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2026년 경기예술신학원 학/생/모/집

설립배경

문화전쟁의 시대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목적을 둔다.



원장 장대수 박사

학 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Ph.D 철학박사)

경 력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세익스피어, 오셀로, 말괄량이길들이기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주연)
싸르프르작, 이강렬연출(주연)
출구없는 방 출연(주연)
선생: 주연

개강: 3월 학제: 3년
수업: 매주 월,화(오후6시) 학과: 연극신학과

입학문의: 010-6325-3916
주소: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83 현대프라자 4층

지구촌 복음방송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다문화복음방송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겐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트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 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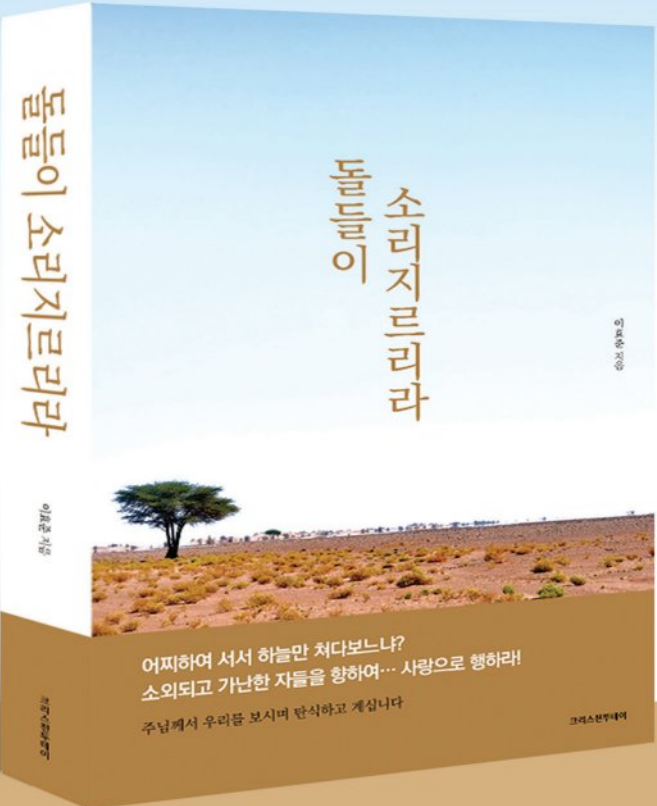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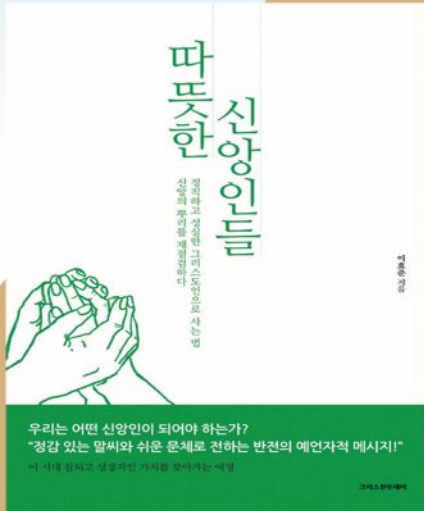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천투데이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성경의 역사 성경의 형성사 및 번역사 (3)

신약 정경 형성사의 요약
신약 정경은 교회협의회 활동을 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개개의 책들이 지닌 영감과 내적인 권위가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인정하고 정경화하는 결정적인 요소를 이루었다. AD 200년에 이르러서야 신약은 본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서들을 포함하였다. 그 후 이것들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권위와 확실성을 지니게 되었다. 3세기에는 「안티레고메나」로 논쟁이 벌어졌다. 동방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인정치 아니하였으며, 서방에서는 히브리서를 부정하였다. 실제적으로 3세기 말에 가서야 모든 외경서들이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 그리고 이집트 아타나시우스의 정경이 설정한 명확한 구분으로 실제로 어떠한 문서가 정경의 지위를 갖는가에 대한 논쟁은 그치게 되었다. 제3차 카르타고 교회회의(397년)는 이 결정을 확증하였으며, 이때부터는 어느 신약 문서에 대한 논쟁도 그치게 되었다. 동방에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서방과 알렉산드리아 아타나시우스의 경우, 감바도기아 교부들의 영향은 모든 반론을 일축시켜 버렸다. 페쉬타(시리아 성경)에 요한 2,3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첨가함으로써 정경에 대한 문제는 동방 역시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신약 정경은 모든 실제적인 목적에 맞추어 서방에서는 400년에, 동방에서는 500년에 이르러 그 결정을 보았다.
현재까지의 정경사
몇 가지 근소한 차이점을 제외하고서는 4세기 초 신약정경에 대한 결정은 현재까지 내려오는 교회의 결정으로 남아 있다.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은 소위 교회의 절대성이라는 권위에 항변하

여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구약 정경에 대하여 로마교회는 1546년 「사크로산크타 교령」(Decree Sacrosancta)으로 트렌트공의회 중 14권의 외경서 중 11권을 정경으로 공포했다. 이것은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 마카베오상하, 세 아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이었는데 그 후 로마가톨릭교회는 에스텔서를 추가했다.
신약의 본문
고대로부터 신약만큼 서방세계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문서는 없었다. 어떠한 고문서의 본문도 이렇게 잘 입증되지는 못했다. 거의 5천편의 헬라어 사본(필사본)이 있으며, 초기 번역문서의 사본만도 1만여편이 존재하며 이외에도 수천에 달하는 교부들의 인용문이 있다. 본문연구의 문제는 비교연구에 의하여 순수한 본문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본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신약성경 자료 : 본문연구
파피루스 사본 1세기에 걸친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로 현재 P 문자로 가장 오래된 신약 사본 시내 사본(a) 4세기, 신약이 148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1844년과 1859년에 시내산에 있는 성 캐더린수도원에서 티센도르프가 발견한 것이다. 역시 여기에는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단편문서도 들어 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A) 5세기, 이것은 대부분의 구약과 신약 사본을 담고 있다. 1627년 영국 찰스 1세에게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기증한 것으로, 1757년에 대영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바티칸 사본(B) 4세기, 이것은 1481년 이래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사본은 히브리서 9:14~13:25, 목회서신, 빌레몬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구약과 신약 전부를 수록



하고 있다.
에브라임 사본(C) 5세기, 신약 238장 가운데 145장이 보존되어 있다.
베자 사본(D) 5세기, 신약에 관한 것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제1체스터 비티 파피루스(P45) 3세기 초, 이것은 복음서와명명되어 P1, P2의 색인표가 붙은 신약본문의 파피루스 단편문서가 75편 이상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연대는 2~8세기에 걸쳐 있으며, 신약본문의 약 40%로 총괄 부수가 25권의 책을 이루고 있다. P52는 요한복음 18:31-34, 37, 38의 부분이며 연대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대략 135년의 것이다. P46, P46, P47은 체스터비티 파피루스 I, II, III(200년경)에 들어 있다. P66은 200년경으로 추정되며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보드며 파피루스이다. P75는 새로 발견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보드며 파

피루스인데 200년경의 것이다.
언설자체 사본 이것은 둥근 종 모양의 대문자로 양피지위에 기록되었으며 800년경까지 신약 필사본에 사용되었다. 현재 300여개의 언설자체 사본이 남아 있다.
초서체 사본 소문자 필사본은 초서체로서 기록되었는데, 9~18세기로 추정된다. 모두 합쳐 2647편의 소문자 사본이 발견되었다.
역본 100년 전의 헬라어 본문에서 번역된 것들은 대단한 가치가 있다. 이 가운데서 고대 라틴어 역(2세기),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역(382-84년), 시리아역(4~5세기), 콥트역(2~4세기), 아르메니아역(5세기 초), 고대게오르기아역(5세기), 에디오피아역과 고트역(4세기 중기)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성구집 이것은 연중행사에 통독된 성경 교훈을 담고 있는 교회 예배서이다. 언설자체와 초서체

로 된 2천여 성구집이 남아 있다. 이들의 연대는 280-1600년경으로 추정된다.
폐각과 부정 현재 신약 본문이 부분적으로 새겨져 있는 25개의 폐각과 9개의 부적이 알려져 있다. 연대는 4~13세기경이다.
교부들의 인용문 이 중에 8만 6천여편 이상이 알려져 있다.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
가장 오래된 마소라 히브리어 필사본 그 연대를 9세기 말 이전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예언서가 기록된 카이로 사본(895년), 구약 전문이 기록된 알렙포(Aleppo) 사본(925년경), 레닌그라드 사본(1108년에 완성됨)으로서 후자는 키텔의 《Biblia Hebraica》의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947년에 발견된 2개의 이샤아 필사본 사해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BC 2~1세기로 추정되는 구약 문서들 중의 하나를 제외한 모든 단편문서와 함께 1천년이나 더 앞선 히브리어 본문을 보여 준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파피루스 본문 중 30장을 포함하고 있다.
제2체스터 비티 파피루스(P46) 3세기 초, 바울서신이 기록된 파피루스 사본 104장 가운데 86장이 보존되어 있다.
제3체스터 비티 파피루스(P47) 3세기 말, 32장의 파피루스 요한계시록 사본 가운데 10장이 남아 있다.
제2보드며 파피루스(P66) 3세기 초, 요한복음이 기록된 파피루스 사본 150장이 남아 있다.
제14, 15보드며 파피루스(P75) 3세기 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본문 144장 전부가 발견되었다.
성경 영역역본
초기 앵글로-색슨어역 비드(Bede)에 따르면 680년경 캐드몬은 일상어로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시로 표현했다. 비드(735년에 죽음)는 요한복음 번역자로 정평이 있었다. 엘프리트 왕(848-901년)은 성경의 여러 부분을 자국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위클리프(14세기)와 틴들(16세기)시대까지는 성경이 부분적으로 영역되었다.
위클리프역(1382년) 이것은 최초로 완역된 영역본으로 1400년경에 수정되었으나 1415년에 몰수되어 불타 없어졌다. 그러나 적어도 170여편의 필사본이 남아 있다. 단점은 헬라어 원본 대신에 라틴어 불가타역을 기초로 했다는 점이다.
틴들역(1525-35년) 틴들역의 중요성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본에서 번역된 일련의 번역본 가운데 최초의 것으로서, 그 문제가 매우 독창적이고 또한 인상적이어서 1611년에 번역된 공인 흙정역(KJV)의 근간을 형성했다.
커버데일(Coverdale)역(1535년) 마일즈 커버데일은 틴들의 학자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는 미완성되어 있던 부분을 독일어와 라틴어 번역을 통해 자력으로 보충하였다. 그는 최초로 인쇄된 영역 영어 성경을 출판하였다. **〈개속〉**
더로템 | 성경의 형성사 및 번역사 작성자 이종호

바이블지식IN

연애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는 언제인가?

연애를 시작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는 언제인가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인격적인 성숙도, 삶의 목표, 신념 등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삶의 경험이 부족하며, 그로 인해서 덜 성숙하게 됩니다. 고작 자신이 누구인지 의식하기 시작하는 때는, 아직 안정된 사람의 애착을 형성하기에는 영적으로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며, 정서적, 육체적, 정신적 및 영적 손상을 남길 수 있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애 관계에 빠지면, 특별히 상대에 대한 감정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상대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면서 거의 지속적으로 유혹을 받게 됩니다. 10



대 청소년들 (십이지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은 때때로 거의 감당할 수 없는 호르몬 및 사회적

인 압력에 둘러 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느낌, 즉 기쁨과 희열이 섞인 의식, 두려움, 혼동이 오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연애 관계의 압박을 더하는 것은 (특히 연애 상대가 똑같은 격변을 겪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린 나이의 연애 관계는 유혹에 저항하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다 형성되지 않은 섬세한 자아상에 피해를 끼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결혼할 마음이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면, 아마도 데이트 또는 구혼을 시작하기에

는 너무 어린 나이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훨씬 더 안전한 것은 연애 감정의 압박이나 그로 인한 어려움이 없이 사회적 기술과 우정을 맘껏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 활동일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연애 관계를 언제 시작하든 상관없이, 그 시기는 배워왔던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서 자라나는 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흥미진진한 과정을 시작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염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분이 되라” (디모데 전서 4:12).

캣케스투스 제공

행복한농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오늘의 말씀

가르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

[좋은성경구절] 로마서 2장 17-22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7-22절에서 신앙인의 가장 위험한 함정을 드러낸다.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위선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스스로를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여겼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의 모순 속에 빠져 있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신앙의 지식은 축복이지만, 지식만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고, 진리를 가르치면서 진리를 살지 않을 수도 있다.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지식이라 그 지식과 삶 사이의 간격이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 이것이 신앙의 위기다.
바울은 이어 묻는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은 모든 신앙인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다.



신앙의 첫 번째 훈련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네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쉽게 보면서 자신의 죄에는 둔감한 마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바울이 언급한 도독질과 간음, 우상에 관한 문제는 단지 외적인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

는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빼앗기는 삶, 기록을 말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히는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죄다. 신앙의 언어와 삶의 실체가 분리될 때, 신앙은 껍데기가 된다.
하나님은 외적인 경건보다 내면의 진실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며, 의식이 아니라 진실한 순종이다. 예배와 봉사, 헌신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도구가 될 때 신앙은 왜곡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참된 신앙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삶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증거가 된다.

풍성한 묵상

미려한 타조에게 주신 은혜

타조는 날개가 달렸으나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타조는 알을 낳을 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타조는 여름날의 열기가 밀 이삭을 패기 전에는 결코 알을 낳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시기를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알아냅니다.
타조가 굴이 이때를 기다려서 알을 낳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낙 금새 잊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타조는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은 뒤에 모래를 덮어 두면 자기가 알을 낳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운 계절에 알을 낳는 것입니다. 화장한 날씨 덕분에 타조 알은 저절로 부화되고 새끼가 제 꼴을 갖추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미려한 것 같아 보이는 타조에게도 가장 적합한 때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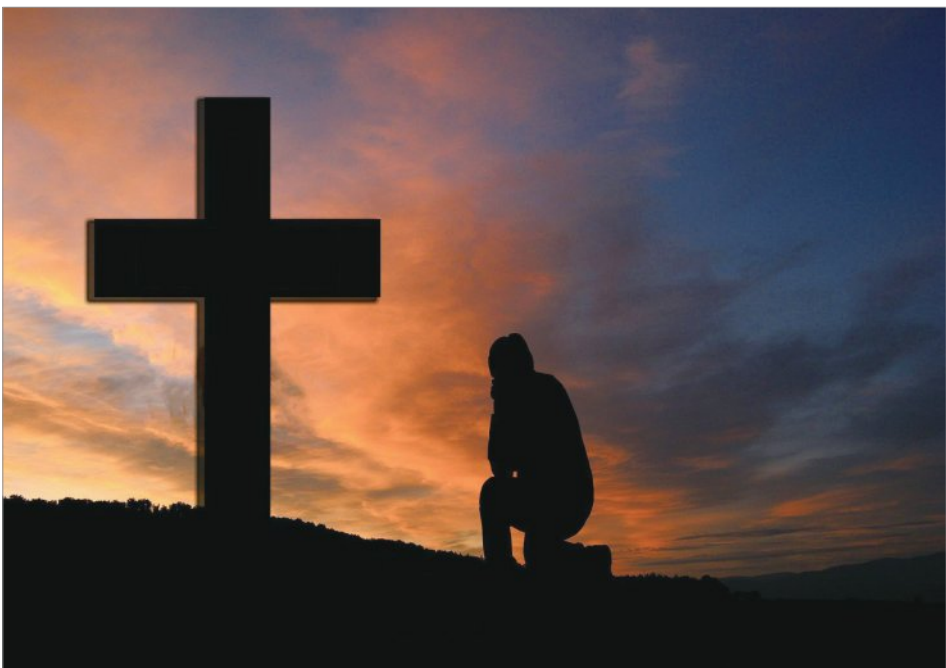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주셨는지요. 피지올로구스 「기독교 동물상징사전」 중에서 / 출처: 햇볕같은이야기

묵상 책갈피

기도와 고난

본지는 [묵상 책갈피] 코너를 통해 신앙도서에서 은혜롭고 감명 깊은 내용을 선택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기도와 고난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라고 말했다. 기도는 ‘환난 날에’ 해야 할 가장 적절한 활동이다.
기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사무엘은 “아는 여호와 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것이나라 하니라”(삼상 3:18)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인정했다. 기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 고난은 강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아무 데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무기력한 심정을 느끼게 만든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되다. 고난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와 인내와 순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고난의 때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여쭙어야 할 때이다. 영혼이 온통 깨지고 상하여 곤고할 대로 곤고해졌을 때, 자비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하지 않겠는가? 고난을 당하는 영혼이

골방 외에 그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불행히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고난 때문에 슬프고 낙심되는데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다. 고난을 당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E.M. 바운즈 「기도해야 산다」 규장 P74~75



교계

2026년 9월 4일(금) 교계 주요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EMS-PCUSA-베를린 미션 청년 대표단 내방 및 간담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1:00 ~ 12:00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사무총장실
9월 4일자 교단 공인 성서일과(Lectionary) 시행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9월 4일 당일	전국 노회 및 소속 지교회
하늘꿈연동교회 '모두함께 금요기도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9월 4일 저녁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하늘꿈연동교회 본당
청량리교회 속회공과 배포 및 주간 속회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9월 4일 당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교회 및 각 속회 처소
경기노회 주사랑교회 금요심야기도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21:00	경기노회 주사랑교회 본당

2026년 9월 4일(금) 주요 기독교 연합 기관 및 교단은 대규모 연합집회나 대외 행사를 열지 않고, 교단 본부 단위의 외교 접견과 각 지교회의 정기 금요 사역을 중심으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본부는 9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사무총장실에서 해외 파트너 교단 및 선교단체 청년 대표단을 맞이한다. 이번 방문에는 독일복음주의선교협의회(EMS), 미국장로교(PCUSA), 베를린선교회(Berlin Mission) 소속 청년 대표단이 참석하여 교단 사무총장과의 공식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회는 이날 지정된 성서일과(시편 119:33-40, 에스겔 24:15-27, 로마서 10:15b-21)를 전국 노회와 지교회에 공시하고 묵상 예전을 이어간다.

지교회 차원의 정기 기도회 및 묵회

사역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예정통합 소속 하늘꿈연동교회는 4일 저녁 본당에서 '모두함께 금요기도회'를 개최하며, 예장백석 경기노회 주사랑교회는 밤 9시 본당에서 정기 금요 심야기도회를 연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량리교회는 당일자로 발행되는 교단 공과 과정에 맞춰 속회공과를 배포하고 속회별 소그룹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주요 연합기관과 예정합동, 예정고신 등 대다수 교단은 당일 대규모 공식 회의나 행사를 배정하지 않았다. 이는 9월 셋째 주부터 본격화되는 각 교단의 제11회 정기총회(합동-통합) 및 제76회 총회(고신), 감리회 감독선거 등 정기총회 회무 준비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김진영 기자

선교

026년 9월 4일 선교단체 주요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제952차 전주 평신도 선교세미나	국제가정교회사역원 (국제가사원)	9월 4일(금) 개막 (9.4~9.6)	전북 전주시 기쁨넘치는교회당
개교 80주년 기념식 및 동문 초청 홈커밍데이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 준비위원회)	9월 4일(금)	부산 영도구 고신대학교 영도캠퍼스
2026학년도 2학기 선교훈련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수납 개시	목원대학교 선교훈련원	9월 4일(금) (등록 기간: 9.4~9.11 16:00)	목원대학교 신학관 312호 및 지정 수납 계좌
2026 가을 전문 선교 훈련 코스 개강	스미다 선교회 (SMIDA Mission)	9월 4일(금) 오후 7:30~9:00 (EDT 기준)	온라인 화상 회의 (Zoom)
9월 정기 온라인 금요기도회	예수선교사관학교 (NCM Seoul /NCTC)	9월 4일(금) 저녁 9:30~11:00	온라인 화상 회의 (Zoom 스트리밍)

2026년 9월 4일(금) 국내외 주요 선교 단체와 기독교 선교 교육기관들이 평신도 세미나, 전문 선교 훈련 개강, 개교 80주년 기념식 및 정기 기도회 일정을 일제히 개최·진행할 예정이다. 각 교단 총회 준비 등으로 교계 연합행사가 축소된 가운데, 선교 현장 훈련과 파송 사역 중심의 일정들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각각 전개될 방침이다.

국제가정교회사역원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전북 전주시 기쁨넘치는교회당에서 '제952차 전주 평신도 선교세미나'를 개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평신도 선교 헌신자와 사역자를 대상으로 가정교회 기반의 선교 실천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신대학교는 9월 4일 부산 영도캠퍼스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 및 동문 초청 홈커밍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1946년 개교 이래 80년간의 기

독교 교육과 선교 역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 파송 동문 선교사들을 초청해 선교 비전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목원대학교 선교훈련원은 9월 4일 2026학년도 2학기 선교훈련원 전형 합격자를 개별 공지하고 등록금 수납을 개시할 예정이다. 합격자 등록금 납부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1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될 방침이다.

스미다 선교회(SMIDA Mission)는 9월 4일 오후 7시 30분(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12주 과정의 '2026 가을 전문 선교 훈련 코스'를 개강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은 11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원격 화상 강의로 진행될 계획이다.

예수선교사관학교(NCM Seoul / NCTC)는 9월 4일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화상 회의 플랫폼을 통해 '9월

정기 온라인 금요기도회'를 실시간으로 선교사와 국내외 훈련생들을 위한 중보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도회는 파송 기도 사역으로 채워진다.

노형구 기자

NGO

2026년 9월 4일 기독교 NGO 공식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2026 장애문화예술 임팩트 컨퍼런스	주최: 밀알복지재단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IBK기업은행	14:00 ~ 16: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드림플러스 강남 B1 메인홀
제21회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발길걷기	주최·주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KBS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등	16:00 ~ 익일 6:00 (16:00 부스 개시 / 20:00 7km 출발 / 22:00 36.5km 출발) ※ 대전 지부: 19:00 ~ 22:00	[서울 메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대전 지부] 엑스포 시민광장

2026년 9월 4일(금) 주요 기독교 사회 복지 NGO인 밀알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가 각각 장애인 문화예술 고용 창출 포럼과 대규모 자살 예방 야간 걷기 캠페인을 현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은 9월 4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드림플러스 강남 B1 메인홀에서 '2026 장애문화예술 임팩트 컨퍼런스'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IBK기업은행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기업 ESG-CSR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온 앙상블'의 현장 클래식 연주와 '브릿지온 아르떼' 작가들의 작품 전시 도슨트가 진행된다. 이어 'ESG 시대 사회공헌의 변화와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전문가 주제 발표, 기업 파트너십 사례 발표(IBK기업은행 사회공헌부 등),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다루는 패널 토크가 차례로 이어질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는 KBS와 공동 주최로 9월 4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제21회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발길걷기'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후 4시 현장 부스 개시를 시작으로 공식 개회식을 거쳐 저녁 8시 7km 코스, 밤 10시 36.5km 코스 참가자가 순차 출발해 익일 아침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행사장에는 사전 등록 참가자 총 3,000명(7km 2,635명, 36.5km 365명)이 모여며,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도 지부 대면 행사가 당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8km 코스로 동시 운영될 방침이다.

다니엘 최 기자

리빌더에듀케이션, 2026년 가을학기 ‘토요 원데이 스쿨’ 신입생 모집

마키아벨리·흙스·로크·모어 등 4대 정치철학 고전 정독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기반 교육

리빌더에듀케이션(대표 신지아)이 2026년 가을학기 '리빌더 토요 원데이 스쿨' 신입생을 모집한다. 다음세대를 통일한국의 리더로 세우기 위함이다.

'Back to the Basics: Re-Founding'(변하지 않는 본질, 흔들리지 않는 뿌리)'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가을학기는 세속적 가치관이 팽배한 현대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 토대와 개혁주의 신학적 기초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교육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리빌더센터에서 총 11주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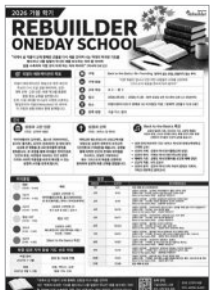
이번 교육 커리큘럼은 성경과 고전 인문, 성경과 신학, Back to the Basics 특강 등 3대 핵심 영역으로 짜여졌다.

'성경과 고전 인문' 영역에서는 신지아

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리빌더센터에서 총 11주간 진행된다.

이번 교육 커리큘럼은 성경과 고전 인문, 성경과 신학, Back to the Basics 특강 등 3대 핵심 영역으로 짜여졌다.

'성경과 고전 인문' 영역에서는 신지아



대표의 지도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흙스의 『리바이어던』, 로크의 『통치론』, 모어의 『유토피아』 등 4대 정치철학 고전을 정독하고 토론하며 천부인권과 자유의 개념을 성경적 시각에서 다시 정립한다.

'성경과 신학' 영역은 리빌더처치 담임 크리스 강 목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6~9장)를 바탕으로 인간론과 기독교론을 가르쳐 바른 신학을 세운다. 이와 함께 히브리어 기초, 성경의 이해, 예배의 기초 및 선교, 성경과 음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도 병행된다.

아울러 이번 가을학기를 마친 학생들은 오는 2027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단둥, 백두산, 도문 등 북중 접경 지역

을 방문하는 '말씀 기도 선포 선교 여정'에 참여해 복음적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현장 선교 훈련을 받게 된다.

신지아 대표는 "혼돈과 미혹의 시대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의 본질과 바른 신앙의 정수"라며 "통일한국의 리빌더로 자라날 다음세대와 거룩한 사명에 동참할 가정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구글 폼(<https://forms.gle/BtW56jGd9WDouMj9A>)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비는 1인당 10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빌더에듀케이션(010-4056-64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형구 기자

굿피플, 네팔 홍수 피해 지역 6천 달러 규모 1차 긴급구호

굿피플(회장 이용기)은 최근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피해 지역에 6천 달러 규모의 1차 긴급구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굿피플은 다음 주 초 네팔 라수와(Rasuwa), 누와콧(Nuwakot), 다딩(Dhading) 지역의 홍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피해 가정에 식량키트, 방수포, 배터리, 위생용품 등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다.

굿피플은 네팔 현지 지부를 통해 피해 상황과 주민들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확

인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9월 중순 이후에는 현지 상황에 따라 긴급구호 중심의 대응에서 조기복구 지원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굿피플 이용기 회장은 "갑작스러운 홍수로 생활 기반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 물품을 준비했다"며 "굿피플은 앞으로도 재난 현장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한일장신대, 개교 104주년 감사예배 및 제16회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개최

김인수 목사 명예신학박사 수여…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도

한일장신대학교(총장 황세형)는 9월 2일 교내 예배당에서 개교 104주년 기념감사예배와 제16회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이사진과 교계 인사, 동문, 교직원 및 재학생 등이 참석해 개교 104주년을 축하하고 새 학기의 시작을 함께했다.

1부 감사예배는 노항규 경건실천처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이견희 총동문회장(군산광원교회)의 기도와 이견희 신학대학원 동문회장(금당교회)의 성경봉독,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의 특송이 이어졌다.

설교를 맡은 순천북부교회 김동문 목사는 마가복음 2장 13-14절을 본문으로 ‘나를 따르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목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며, “설립자인 서서평 선교사의 숭고한 섬김의 정신을 계승해 세상을 변화시

키는 기독 인재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다. 예배는 전 이사장 장덕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어 열린 2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희락교회 개척·위임목사를 역임한 김인수 목사가 제16회 명예신학박사(D.D.) 학위를 받았다. 강정희 대학원장의 사회로 경보고 및 소개영상이 상영됐으며, 학위 수여와 축하 순서가 이어졌다.

김인수 명예박사는 전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이학석사, 전남대 이학박사 및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후 연구과정을 거친 수리학 분야의 권위자다. 1978년부터 36년간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며 자연과학대학장, 정보과학대학원장, 호남수학회장, 대한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과학의 날 대통령표창과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동시에 신학에도 뜻을 두어 2000년 한일장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전주 희락교회를 개척하는 등 학문과 교육 활동을 병행해 왔다.

김인수 명예박사는 답사를 통해 “명예신학박사라는 귀한 학위를 받게 되어 깊은 감사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축사에 나선 임기수·김택수 회장 역시 학문과 신앙을 겸비해 온 김 명예박사의 삶을 높이 평가하며 축하를 전했다.

신앙의 길에서도 1983년 명덕교회 시무장모로 섬겼으며 1998년 전주 희락교회를 개척했다. 2000년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역학석사(M.Div.) 학위를 취득하고 200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뒤 교회와 선교,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



한일장신대 개교 104주년 기념감사예배 및 제16회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장신대

다.

이어 3부 개교 104주년 기념행사는 기획처장 최혜정 교수의 사회로 개교 104주년 선포, 장기근속패 수여, 경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교가 제창 및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세형 총장은 개교 104주년 선포에서 “한일장신대가 10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힘있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근속패는 30년 근속한 국제교류처 박인경 선생과 10년 근속한 간호학과 김

윤아홍세화 교수에게 수여됐다.

이어 경조장학재단 김택수 이사장이 신학과 정은희, 사회복지학과 문성은, 심리상담학과 임혜옥, 간호학과 박주은, 운동처방재활학과 김상우 학생 등 5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김택수 회장은 한일장신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한일장신대학교는 1922년 미국 남장로교 서서평(E. J. Shepping) 선교사가 광주에 세운 ‘이일성경학교’와 1923년 테이트(M. I. Tate) 선교사가 전주에 설립한 ‘한예정성경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61년 두 학교가 병합하며 ‘한일여자신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 1998년 현재의 종합대학 체제를 갖추었다. 대학 측은 설립 이념인 ‘성공이 아니라 섬김(Not Success, But Service)’의 정신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인다.

김진영 기자

서울신대 기독교교육과, 제주 교회학교 여름캠프 직접 기획·진행

18명 학생, 어린이 100여 명 대상
예배·성경공부·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서울신대학교(총장 황덕형) 기독교교육과 학생들이 제주 지역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캠프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전 과정을 맡으며 기독교교육자로서의 현장 경험을 쌓았다.

기독교교육과 학생 18명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제일성결교회에서 열린 제주지방회 교회학교 연합회 어린이 여름 캠프에 참여했다. 이번 캠프에는 약 100명의 어린이가 함께했으며, 학생들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뜨거운 찬양과 예배를 통해 신앙을 다지는 한편, 구약성경 39권의 주요 내용과 핵심 사건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홀리바이블 탐험대’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말씀을 보다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홀리바이블 탐험대’ 발대식을 비롯해 아이스브레이크, 실내외 포스트게임, 보드게임 대회, 물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성경공부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익히고 서로 교제하며 공동체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는 대학과 교단, 지방회 및 지역교회가 협력해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갔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서울신대학교와 총회교육부(부장 김철규 목사), 총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민웅 목사)가 협력했으며, 제주지방회 교회학교연합회(회장 박종찬 장모)와 제주제일성결교회(담임목사 김홍양)가 캠프 운영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교단과 지방회, 대학 및 학과가 함께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현장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기독교교육과 학생들에게 이번 캠프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실천의 장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예배와 성경공부를 비롯해 각종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최근 제주제일성결교회에서 열린 제주지방회 교회학교 연합회 어린이 여름 캠프에 참여한 서울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신대

하고 운영하면서 교육 대상자인 어린이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전반에 참여하면서 기독교교육자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교육 현장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기독교교육과 학생회장 손예찬 학생은 이번 캠프에 대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법을 경험한 시간이었다”며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독교교육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학과장 손정위 교수도 학생들의 현장 경험에 의미를 부여했다. 손 교수는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캠프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기독교교육 학습공동체의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경험을 통해 기독교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한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비봉고 학과 연계 진로 설계 특강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 일환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현준)는 지난달 31일 비봉고등학교 특성화반 1학년을 대상으로 전공 및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비봉고 학과 연계 진로 설계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한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2024년 선정된 고용노동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및 일반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강은 비봉고 1학년 4개 반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급 교실에서 진행됐으며 ▲취업 트렌드 및 산업 이해 분석 ▲전공 기반 직무 역량 구체화 전략 ▲나만의 진로 실행 계획 수립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최신 산업 변화 흐름과 전공 관련 유망 직무를 탐색하고, 전공을 실무에 연결하는 전략을 배우는 한편 단기·중기 목표에 따른 단계별 실행 계획을 직접 수립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신대 이현준 센터장은 “고교생들이 전공에 기반한 진로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고, 산업 및 채용 트렌드에 대한 이해



한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비봉고 학과 연계 진로 설계 특강을 진행했다. ©한신대

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취업 준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상담과 직업훈련·일 경험 등을 연계해 졸업 후 원활한 사회 진입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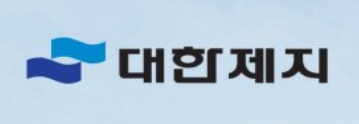
한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협약 고교를 대상으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hs.ac.kr) 또는 전화(031-379-00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지혜 2



목회자 / 당회와의 커뮤니케이션
현대 예배의 많은 필요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추어나 불런티어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미디어, 특히 사운드 시스템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비의 설치에 맞춰 이러한 전문적인 장비들을 바르게 운전할 수 있는 ‘프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비 추가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할 엔지니어의 고용에 관하여는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일들이 불런티어웍(봉사)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의 고용이 익숙지 않는 것이다. 오디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대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모든 교회에 골고루 나누어 들어가 ‘아름다운 봉사’를 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현대 예배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사운드 시스템을 설치해도 운영자의 한계로 장비들이 100%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장비들이 장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많은 교회들이 장비는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전문 인력의 투입에 관해서는 여전히 비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보다 많은 해결 방법이 논의되어야 하겠다.

다행히도 최근 몇 년 사이 교회에서 이러한 미디어 사역의 전문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엔지니어들을 파트타임이나 풀



타임으로 고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회의 미래 사역을 준비하는 비결은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엔지니어는 ‘겸손’으로

무장한 철저히 섬기는 위치이다.

오디오 엔지니어의 일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밝은 자리가 아니다. 공연이 끝나면 무대 위의 뮤지션들은 관객들의 갈채를 받지만 엔지니어에게 돌아오는 박수는 전혀 없다. 잘하면 본전이고 실수하면 모든 불만이 쏟아지는 자리가 엔지니어의 자리이다. 이러다 보니 엔지니어는 예배를 드리기 힘든 자리가 되기 쉽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사고가 타일 수 있으므로 예배에 집중하기보단 예배의 진행에서 눈과 귀와 정신을 쫓을 수 없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엔지니어는 어느새 예배에서 소외되어 버린다. 성경 속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방문에 예수님과 전적으로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일에만

분주하다. 이는 엔지니어들뿐 아니라 미디어팀이나 심지어는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느끼는 영적인 고갈일 것이다. 같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앙을 잃고 일반 하는 마른 나무 같은 사람이 되든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회를 떠나게 된다. 이러한 ‘변아웃’되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가끔 사역을 떠나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끔은 소외된 엔지니어 자리에 찾아와 ‘오늘 사운드 좋았어요.’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 준다면 사역에 더 힘이 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엔지니어는 ‘겸손’으로 무장한 철저히 섬기는 위치이다.

◆김건수

버클리 음대에서 뮤직 프로덕션 앤 엔지니어링을, 뉴욕대학교에서 뮤직테크놀로지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음향제작과 전임교수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 스튜디오 (KOCCA)에 재직 중이다. 참여한 작업들로는 ‘최치우 다이나믹 재즈 쿼텟(국립극장 해오름극장)등의 음악감독으로 CCM사역자 김명식 ‘사랑을 살리는 노래’ 등이 있다. 저서로는 『뮤지션을 위한 사운드 시스템 가이드북』 (예술, 2010), 『뮤지션을 위한 홈 레코딩 스튜디오 가이드북』 (예술, 2011), 『찬양 예배를 위한 사운드 시스템 가이드북』 (예술, 2016) 등이 있다.

늘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

늘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은 여전히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시공창 냄새를 맡고 있는 인생



조성환 목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 14:23)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심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주님의 것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은 정말 인격적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마치 프로그래밍 된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훈련시키신다.

『나니아 연대기』를 비롯한 여러 서적을 집필하여 많은 지성인들로 하나님을 믿도록 한 C. S. Lewis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방이 있는데 하나는 지하실, 또 다

른 방은 다락방이라고 부른다. 지하실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과 죄성이 다스리는 방(육에 속한 것)이라면 다락방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이 들어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지하실(나의 죄성)보다 ‘더 나 다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곳이다.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방에서 흘러나오는 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 세상과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로 흘러 보낸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시공창 냄새가 자기 것인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6-17)

우리 안에는 계속적인 싸움이 있는데 바로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것과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것들과의 싸움이다. 찬양은 무엇인가? 유명한 찬양곡을 음악적으로 잘 연주하는 것이 찬양일까?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며 우선적인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찬양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 여전히 시공창 냄새

새가 진동하는 나의 육을 절감하며 다락방에서 나오는 것만 따라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찬양은 무엇인가?

유명한 찬양곡을 음악적으로 잘 연주하는 것이 찬양일까?

목사인 나도 하루 하루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계속되는 이 두 세계의 전쟁을 경험한다. 너무나 자주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찬양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일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려고 하는 육적인 생각과 또 다른 소욕 즉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일하고, 주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생각 사이에서 계속적인 선택을 해야하는 것이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혹은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육적인 삶의 모습 속에 거하여 많은 관계들 가운데 덕이 되지 않고 시공창 냄새를 피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훈련 가운데 있다. 여전히 시공창 냄새를 맡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인 양 그대로 흘려보낼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런 삶에는 충분한 기쁨이 없고 오히려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며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조성환 목사

초등학교 때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윤학원 교수의 지도 아래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연주를 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8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갈 5:18-21)

주님, 우리 찬양대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피어 오르는 시공창 냄새로 인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이요, 축복임을 절감하게 하사 항상 우리 입술에 주를 향한 그리고 주를 인한 기쁨의 찬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한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
금융지원!

kobc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헤비메탈 축제 ‘다운로드’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45명의 채플린 사역



올해 영국 헤비메탈 축제 ‘다운로드’에 최대 9만 명의 관객과 함께 여러 교단 출신 채플린 45명이 참여해 관객들을 섬겼다. ©Baptists Together

영국 최대 규모의 록-헤비메탈 음악 축제 ‘다운로드(Download Festival)’에서 기독교 채플린(원목)들이 관객들을 섬기며 복음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크리스천 투데이(Christian Today)가 지난 9월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다운로드 축제에는 최대 9만 명의 관객이 몰렸으며, 이와 함께 45명의 채플린이 현장에 배치됐다. 이 축제는 건즈 앤 로지스(Guns N’ Roses), 림프 비즈킷(Limp Bizkit), 링크인 파크(Linkin Park) 등 오랜 경력의 밴드

들이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한 채플린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참여한 채플린들은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와 영국침례교연맹(Baptist Union of Great Britain) 등 여러 교단 출신으로 구성됐다. 침례교 캐슬 도닝턴 커뮤니티 교회(Castle Donnington Community Church)의 로이 몽크스(Roy Monks) 목사는 침례교 매체 배티스트 타임스(The Baptist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채플린

들이 축제 방문객들로부터 늘 “따뜻하게 환영받는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축제는 2003년 이후 거의 매년 열려 왔지만, 채플린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6년간의 일이다. 몽크스 목사는 형광 조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채플린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건다며, 사실 위치 안내나 의료 지원 연결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플린들은 이러한 실무적 지원 외에도 축제 기간 중 성찬식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팀을 상시 운영했다. 몽크스 목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다양하지만, 많은 이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놀라운 만남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채플린들이 기도해 주었던 두 사람이 이후 교회를 찾아 참례를 받고, 올해 다시 찾아와 감사를 전한 일

은 사역팀에 큰 힘이 됐다. 이들은 내년 축제 때 봉사에 동참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배티스트 타임스는 전했다. 채플린들은 현재 더버(Derby) 지역에서 열리는 소규모 레ιβ브 파티에도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몽크스 목사는 “많은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깊은 갈망을 하나님의 마음이 움작이셨기에, 이런 자리에 문을 열어 주셨다고 믿는다”며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유진 김 기자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 새 싱글 ‘새벽 이슬 같은’ 발표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이 지난 2024년 싱글 앨범 ‘주기도’ 이후, 약 2년만에 새로운 싱글 앨범 ‘새벽 이슬 같은’을 발표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은 국제 예수전도단(YWAM) 산하의 한국 예수전도단 서울대학지부에 소속된 찬양사역 공동체로 1980년대부터 국내 각 캠퍼스에서 기독교 동아리의 형태로 대학생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예수전도단 서울대학지부는 성경공부,

예배, 전도여행, 훈련 사역 등의 다양한 사역으로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졸업 후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의 새 노래 새벽 이슬 같은(Psalms 110:3)은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를 기반으로 지어진 찬양으로, 예수전도단 YWAM(Youth With A Mission)의 비전

과 함께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선포하는 곡이다. 이 곡의 작곡자인 김동현 간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시편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 거룩한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의 새 싱글 앨범 ‘새벽 이슬 같은’ ©인피니스

옷을 입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은 이번 싱글 앨범을 시작으로 정규 앨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10월 말 EP, 12월 초에는 싱글, 그후 정규 앨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캠퍼스워십은 ‘서울 목요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충무교회(명동역 3번 출구)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며,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캠퍼스 가운데 이뤄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05:00	00 TV새벽예배 마포성현교회 40 하나님의 손길	2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살 2026년 09월 04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4일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연동(김주용) 30 TV강단 한마음(김승룡)	20 대한민국 복음이 담이다 30 2026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
06:00	00 윤호균목사의 CTS 부흥회 50 신앙예세이	10 GOODTV 오늘의 기도 20 비전실교 오름 (김은호) 50 GOODTV NEWS	10 [말씀] 감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97회) 5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429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새예전의 언약 (소강석)(954회)	40 성경 속 인물사
0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한국중앙-임석순 50 생명의 말씀 용인비전-신용수	1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20 행복한 쉼터 LA새생명비전(강준민) 50 행복한 쉼터 왕성 (길요나)	30 휴먼네트워크(56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740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35회)	00 C채널스페셜 사람은 동사다 : 버려진 곳에서 피어난 아이들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0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30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다규 더 로드	00 CGN과 함께 알-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4일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192회)	00 하나님의 음성(22회)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585회) 민수기 22강	00 비전메시지 하늘비전교회 장충만 목사 30 비전메시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09:00	00 백설기(69회)	00 사랑의 메시지 여의도침례 (국영호) 30 행복한 쉼터 순복음축복 (오영대)	00 CGN 비전특강(701회) 4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4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심소2(41회)	10 새롭게하소서(11112회) 김수빈 자매	00 THE 공공(36회) 천사 40 성경 속 인물사(22회) 약속의 자리를 지킨 이삭
10:00	00 구자역 목사의 트롯찬양교실 30 풍성한 삶의 첫걸음 10강	00 매일 주와 함께	20 미션로그 - 끝나지 않은 선교이야기(7회) 50 청춘찬양단(1회)	00 CBS NEWS 10 20 더 콜링(155회) 50 살롱 쉼튼(46회)	00 강연소 통(78회) 상처는 하나님 손에서 스며이 된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11:00	00 한국교회를 논하다(603회) 50 김지연의 중독전쟁(11회) 15세	00 행복한 쉼터 옥길 (임재호) 30 행복한 쉼터 제주동흥 (박창건)	1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88회) 50 Q&A 107 소요리문답(20회)	00 올포럼(769회)	00 소문난 성경교실(750회) 이기철 목사 첫 번째 16강 은혜로 읽는 창세기 : 요셉의 축복 30 김재원의 광야예찬(30회) 탁구공에 실은 복음-양영자 선교사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대치순복음-한별	00 GOODTV NEWS 20 이영훈 목사의 힐링 스토리 30 오병이어 금요성회	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4회)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253회)	00 TV강단 구세군대한본영 30 TV강단 만리현성결(조준철)	20 말씀의 창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50 말씀의 창 영안정교회 양병희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대구동산-권성수/문대원 3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30회)	0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109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66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352회) 20 통복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11회)	20 글로벌 신앙토코소 왓츠업(62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14:00	00 [생방송]Calling GOD(2563회) 50 더 메시지 시즌1 김진교 선교사.임형규 목사	00 GOODTV 특별간증	00 CGN과 함께 알-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4일 20 [말씀] 양형주 목사(대전도안교회)(11회)	00 말씀의 힘 산일(배요한) 30 새롭게하소서(11488회) 윤성철 목사 1부	0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 50 대한민국 복음이 담이다
15:00	40 7000마라를 스페셜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675회) 40 생명의 살 2026년 09월 04일	20 CBS 성서학당 (최주환)(4551회) 명화로 읽는 그리스도의 생애 18강	00 2026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
16:00	30 생명의 말씀 원주중부-김미열	00 사랑의 메시지 분당선교 (유귀현) 30 행복한 쉼터 송진 (권준호)	00 하용조 목사의 오한복을 강해(59회) 4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4회) 50 [말씀] 공진수 목사(목양교회)(11회)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108회)	00 플다보면(34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 대실로나기에서 40 성경 속 인물사(22회) 약속의 자리를 지킨 이삭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행복한 쉼터 군포성산 (김자현) 30 신의 2수 40 아베스의 기도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437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38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2041회) 50 행복다이아리(663회)	00 말씀의 창 아산큰빛교회 길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135회) 정충현 목사 3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백석대학교 진리의 시간 장종현 4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다음세대 목회전략 콘퍼런스(3회) 50 2026 KOSTA WORLD IN SEJONG(1회)	00 TV강단 열방(현철호) 30 TV강단 세종샘솟는(최병남)	00 김재원의 광야예찬(30회) 탁구공에 실은 복음-양영자 선교사 50 복음으로 미래를 열다(3회)
19:00	00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생명의 말씀 용인기쁨과-정의호	00 사랑의 메시지 군포제일(권태진) 30 사랑의 메시지 새은혜 (황형택)	00 2026 KOSTA WORLD IN SEJONG(1회)	00 TV강단 강남중앙(장찬영) 30 TV강단 베다니(곽주환)	00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20:00	00 생명의 말씀 은평성결-유승대 30 생명의 말씀 포도나무-여주봉	00 더 메시지 강문중 10 예배실황 지구촌 (김형석)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4일 20 THE NEW 하늘빛방7(46회)	0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인치유 50 최서형의 생명에 이르는 길(13회)	00 장충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성지가 좋다(545회) 요르단, 마케루스
21:00	00 박세현의 크로스뷰(31회)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30 서정희의 매일성경(130회) 50 CTS뉴스W	10 행복한 쉼터 전주남성 (안효관) 40 GOODTV NEWS 12세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2026년 09월 04일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585회) 민수기 22강 50 성경칼럼 이것이 궁금하다(47회)	10 이석 목사의 일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75회)
22:00	20 생명의 말씀 군자대현-이화수 50 바이블 프로젝트	00 오론교회 금요철야	10 CGN과 함께 알-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4일 30 믿음의 씨앗 고할교회와 함께(46회)	00 CBS NEWS 10 20 올포럼(768회)	00 C채널 매거진 근데이(421회) 20 금요성령집회 제자광성교회
23:00	00 윤호균 목사의 CTS금요철야예배(1087회)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630회)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사본의 꽃 때	10 크레이그 그로웰의 공공합니다, 하나님(1회) 40 생명의 살 2026년 09월 04일 5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4회)	20 CBS 금요철야예배 (새메단교회)(915회)	10 금요철야예배 수영로교회
00:00	00 Calling GOD(2563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명사들의 명강 4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4일 20 <2026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8회)	10 새롭게하소서(11112회) 김수빈 자매	00 새메단 철야예배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01:00	00 설레는 시니어 토코소 백설기(68회)	10 이영훈 목사의 성령남과 함께	00 다음세대 목회전략 콘퍼런스(3회) 40 [말씀] 권학빈 목사(씨드교회)(202회)	00 산위와의 만남을 말씀 (김영준)(298회) 50 사랑의 말씀 (오정현)(1067회)	00 비전메시지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라파엘 워십
02:00	00 TV찬양예배 한성교회 50 위대한 발견을	10 오! 자유여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565회)	40 이영훈목사의 말씀과 함께(626회)	00 말씀의 창 필그림성교회 양춘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의 나의 최고봉)(144회)
03:00	00 7000마라를 스페셜 50 힐링송	10 GOODTV 특별간증	00 Cross Conference 2021(6회) 3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146회)	10 새롭게하소서(11487회) 제레미 윤 목사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감다위 목사
04:00	00 하나님의 손길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CTS 경건예배 라이프처치/유누리 45 박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친총관 (장동민) 30 비전실교 목동제일(김성근)	10 [말씀] 박진웅 목사(열마인온누리교회)(305회)	00 CBS 성서학당 (최정권)(3516회) 사무엘서 23강 50 CBS 교회사소식(1066회)	00 성지가 좋다(545회) 요르단, 마케루스 30 강남중앙침례교회 주일예배실황 최병택 목사